현대불교

제 77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24일 수요일(음력 2월 9일 · 불기 2554년 · 주간)





어찌 이곳을 흩뜨리려 합니까?

4대종교 '낙동강 공동기도회' … 4대강 사업 저지 공동결의문 발표

30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낙동강의 모습이 3개월 여 만에 사라졌다. 인간의 손에 흐트러진 낙동강에 종교인들이 모였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 모래밭에서 종교인들은 손을 잡고 낙동강이 그대로 흐르기를 기도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 앞에서는 너와 나, 종교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 강, 어버이의 강'이었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4개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수경)는 3월 15일 4대강 사업 현장인 낙동강 상주보에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참가자들이 모여 4대강 사업저지 운동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사는 기도로 시작됐다.

지율 스님은 "대한민국 국토개조론, 한국의 두바이, 한국형 뉴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아름다운 고유의 가치와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가?"라고 호소했다.

최완택 목사(생명의강환경연대 상임대표)는 본 행사에 앞서 "강은 태초부터 흘러 이곳까지 왔다. 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조물주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흐름을 이길 힘은 아무데도 없다"고 기도했다.

김진조 신부(가톨릭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대표)는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사회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4개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는 3월 15일 4대강 사업현장의 한 곳인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에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200여 명은 모래밭에 4대강 저지의 뜻을 '흐르는 강' 4글자를 모래로 쌓아 만들었다. 강변에서 빨강색 깃발까지 4m의 깊이로 땅을 파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도에 이어 참가자들은 낙동강변에서 '어버이 강, 생명의 강'을 노래하며 손을 잡고 모래위에 원을 그렸다. 강변에는 '흐르는 강' 4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참가자들은 낙동강 일대, 상주보 공사현장도 순례했다. 순례 중에는 공동결의문이 낭독됐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저버린다면 종교인들은 온갖 불의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전국의 사찰, 성당, 교당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온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환경회의는 결의문에서 "종교인의 소명에 따라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결의문에 앞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의 순으로 기도문을 낭독했다. 4대 종교는 4대강 문제가 인간의 물질적 욕망, 탐욕.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회하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낙동강 순례 1년째인 지율 스님은 순례단에게 4대강 살리기 공사의 실체를 꼼꼼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율 스님은 3개월 전 거처도 낙동강 상주보 공사 현장 인근으로 옮겼다. 스님은 낙동강이 변하는 순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낙동강을 걸으며 인간의 탐욕에 망가지는 모습을 렌즈에 담고 있다. 스님이 촬영한 낙동강은 다음 카페(cafe.daum.net/chorok9) 등에 공개되고 있다.

지율 스님은 "정부의 4대강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매일 1000여 종의 나무와 1만 여 종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이 염전처럼 네모반듯하게 변하고 있다. 100년도 채 못사는 인간들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자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노현문 신부(산청 성삼위일체성당)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봐야 심각성을 안다. 직접보고 나니 4대강 공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꾸준히 공사현장을 방문해 기도로 저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도회에는 지율 스님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불교계 인사의 참여가 없어 불교계의 범종교적 연대활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와 사찰, 시민사회단체 등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뭇 생명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환경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4대강 사업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교황청의 4대강 관련 성명 발표설과 함께 3월 19일에는 세계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니모베시 국제본부의장이 여주 여강선원(선원장 수경)을 방문해 4대강 보호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연대운동을 논의했다. 이상언 기자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라"

법정 스님, 인연의 소중함 담은 유언 공개

무소유 법정 스님이 상좌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는 쉼 없는 수행정진이었다.

맑고 향기롭게는 3월 17일 서울 길상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2월 24일 작성된 '상좌들 보아라' '남기는 말' 두 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법정 스님이 끝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님은 유언 '남기는 말'을 통해 "내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향기롭게'에 주라"고 말했다. 또,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고도 말했다.

'남기는 말'이 스님 자신을 위한 당부라면, '상좌들 보아라'는 상좌를 비롯한 대중에게 부단하게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적은 '임종게'이다.

대중에게 쉽고 편한 생활법문을 전했던 스님은 마지막 남기는 '임종게'까지도 대중적인 유언의 형식을 빌어 쉬운 표현 · 내용의 글로 남겼다.

스님은 '상좌들 보아라'에서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음을 부처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自燈明 法燈明)"는 말씀 같은 유언은 맏상좌인 덕조 스님에게 전하는 간절한 당부로 이어졌다.

스님은 덕조 스님에게 "결제 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제 중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할 것"을, 다른 상좌들에게는 "존중과 합심으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미리 쓰는 유서'에서 언급했던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도 다시 꼼꼼이 챙겼다. 생전에 '말빚'을 자주 거론했던 스님이 인연과 약속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살았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같은 날 봉행된 스님의 초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이 추모사를, 前 전국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이 법문을 했다.

혜국 스님은 "(대중이) 마음수행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법정 스님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라며 추모했다.

이에 앞선 15일 길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1일 봉행될 예정이던 법정 스님의 추모법회를 취소했다. 길상사는 "(추모법회 봉행이) 스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등 법정 스님 문도는 정부가 법정 스님에게 추서하려 한 국민훈장을 거절했다.

스님의 큰 뜻과 가르침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어떻게 현현시키는지는 '살아있는' 모두의 과제이다.

다비를 마치고 수습된 법정 스님의 유골은 송광사 불일암과 길상사에 나눠 안치됐다. 유골은 4월 28일 49재 이후 불일암과 강원도의 한 토굴에서 산골된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 이상언 기자


3월 13일 서울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초재가 봉행됐다.

승려 사유재산 출연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토론회 열어 종도 여론 수렴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근거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개정안이 3월 16일 입법예고 됐다.

사유재산출연령 개정안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대상을 예비승을 포함한 종단 모든 승려로, 승려 사유재단의 종단 출연에 대한 수유자의 범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비롯한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유언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 ·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총무부 박종학 팀장은 "종단 방침 상 법 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유언장 미제출시 권리 제한 부분은 종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적용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인 승려법 개정안은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이월돼 현재 계류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조동섭 기자

4월 중 사장 문제 해결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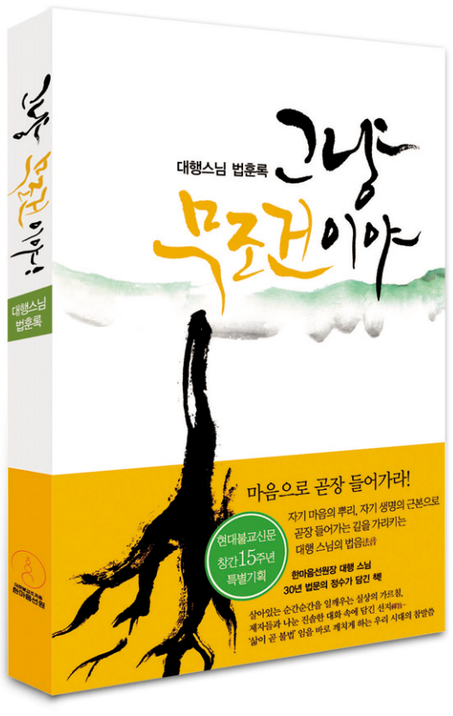
불교방송, 진흥원과 간담회 추진

불교방송이 4월 중 진흥원과 간담회를 열고 2007년 11월 이후 공석인 사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3월 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1차 이사회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4월 중 진흥원과 불교방송 이사진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 것"이라면서 "불교방송은 현재 진흥원이 추천한 두 명의 사장 후보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선임, 창원중계소 부지매입, 2009년 결산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회는 손준석 대현실업 대표이사를 연임하고, 총지종 원송 前 통리원장 후임으로 현지성 통리원장을 선임했다. 이은정 기자

▶14 선지식-성원 스님 ▶4 인터뷰-정미화 ▶9 현장-여강선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

법정 스님의 말빚, 무슨 뜻일까

집착 버리라는 간곡한 가르침

"그동안 풀어 논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3월 17일 유언이 공개된 이후 무소유 법정 스님의 '말빚'으로 만들어진 책을 '소유'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 절판을 둘러싸고 출판사, 스님의 저작권을 상속한 '맑고향기롭게', 독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스님의 재산은 몇 가지 소지품과 저작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맑고향기롭게'에 저작권을 비롯한 가진 것 전부를 주라고 하신 것도 유언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맑고향기롭게 윤청광 이사는 3월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스님의 유지를 존중해 모든 출판사에서는 출판물 일체를 출간하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며 "법정 스님 책이 품절돼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책 출판에 대해서는 "스님의 유지를 따를 것"이라며 "(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님의 글을 누구나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내릴 사안"이라고 전했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책 절판에 대해 "입적 후에 저작권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류시화 시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출판사 발행인들은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했던 분들이다. 이익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오해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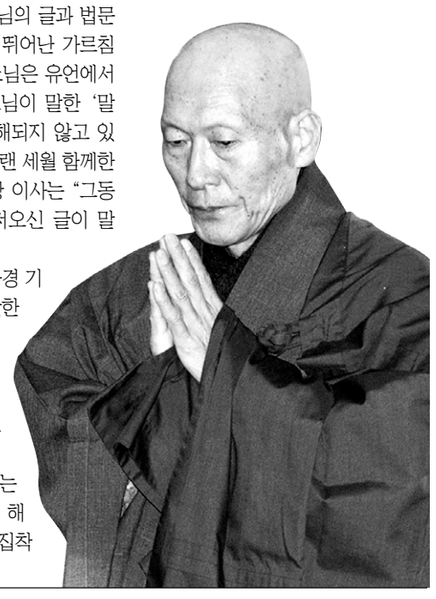
현재 법정 스님의 책을 내는 출판사는 범우사, 샘터, 문학의숲, 이레, 조화로운삶, 동쪽나라 등 6곳이다. 출판사 측은 스님의 유지를 따르는데 뜻을 모으고 있지만 생전 스님이 출판에 대한 뜻을 전하지 않은 것에 난감해 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일기일회> 등을 출판한 문학의숲이 내는 스님의 책들은 계약기간이 2018~2019년까지다. 출간을 앞둔 미발표 책도 있다. 문학의숲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계약을 맺을 당시 스님께서는 '책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탁월한 문장가였고 명쾌한 법사였다. 스님의 글과 법문은 중생을 일깨우는 뛰어난 가르침이었다. 이를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말빚'이라 했다. 스님이 말한 '말빚'의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스님의 곁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맑고향기롭게 윤청광 이사는 "그동안 풀었던 법문과 써오신 글이 말빚"이라고 했다.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 실장은 "스님이 말한 말빚이라는 것이 짐작은 가지만 큰 스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정 스님은 떠나는 길에서 '글'로부터의 해탈을, 중생들에게도 집착을 버리라는 간곡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책을 무소유해 진정한 무소유를 배울 지, 책을 읽고 무소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법정 스님 유언장 [전문]

인연에 감사… 성불하십시오

#상좌들 보아라

1. 인연이 있어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 보내주면 고맙겠다. 모두들 스스로 깨닫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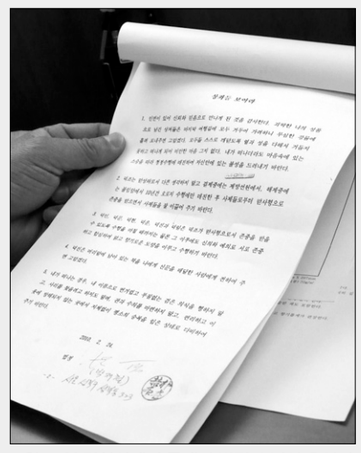
2.덕조는 맏상좌로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제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제중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한 후 사제들로부터 맏사형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사제들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

3. 덕인, 덕문, 덕현, 덕운, 덕진과 덕일 은 덕조가 맏사형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신의와 예의로 서로 존중하고 합심하여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 수행하기 바란다.

4.덕진은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

5.내가 떠나는 경우, 내 이름으로 번거럽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

2010.2.24 법정(속명 박재철)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3월 17일 길상사에서 공개된 법정 스님의 유언장.

#남기는 말

1.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2.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맑고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어 논 말 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3.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2010.2.24 법정(속명 박재철)

명진 스님 "봉은사 직영 지정은 무리수"

총무원 대응 자제 속 징계론도… 재가연대 토론회 제안

조계종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주지 명진 스님(사진)이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스님은 3월 14일 일요법회에 이어 17일 봉은사 제2차 사찰확대운영회의에서 주지직 거래 의혹, 자승 스님과의 대담 내용 공개, 정치권 외압설 등을 제기하며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부당하다. 법정스님 추모 분위기를 틈탄 총무원의 무리수"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봉은사(주지 명진)는 "3월 14일 경내 법왕루에서 1100여 신도 및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일요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명진 주지스님은 <전심법요>에 관한 법문을 대신해 며칠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을 추모하고,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 총무원 측에 봉은사 사부대중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을 공개요구했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의 주장은 17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제2차 사찰확대운영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스님은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건은 종회 통과일 6번째 안건이었지만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다른 안건을 이월시키고 봉은사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며 "이는 추모 분위기로 봉은사 측에서 함부로 반발하지 않을거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려면 특별분담사찰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현재 봉은사는 특별분담직영사찰이 된 셈"이라며 "무리해서 직영사찰을 지정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외압설 등을 거듭 제기했다.

명진 스님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봉은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묵빈대처한다는 원칙 속에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또, 이미 중앙종회 동의까지 끝난 사안을 갖고 물의를 빚는 명진 스님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총무원의 묵빈대처에 빗댄 조심스러운 대응은 신도회를 비롯한 봉은사 대중의 명진 스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은 운영회의에서 "직영사찰건은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다. 명진 스님 같이 훌륭한 분이 주지로 계실 때 이런 일이 닥쳐오히려 다행이다. 어려운 화두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 봉은사 홈페이지에는 명진 스님을 지지하는 신도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동건, 이하 재가연대)는 3월 18일 조계사 다실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직영 사찰지정에 무대응인 총무원과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측 모두 전 종도에게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상호화합의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당선무효소송 답변 준비중

멸빈 회부… 징계 부당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총무원은 현재 종단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원에 제출할 답변을 준비 중이다.

또, 호법부(부장 덕문)는 소송을 제기한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을 '멸빈' 취지로 초심호계원에 징계 회부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3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종단 변호사가 외부 변호사와 함께 답변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호법부 공승관 팀장은 "성호 스님이 원장 스님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출한 것은 종단 교권과 법통을 침해한 것으로 멸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승적에 손대면 승려 아니다. 이번 당선무효소송 제기는 승랍 도둑질을 바로 잡는 제2의 정화"라면서 "이번 소송은 (사람끼리) 다툼은 필요 없다. (서류로) 답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징계 회부된 것에 대해 성호 스님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사회법에 제소했다고 해서 나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승관 팀장은 "선거 등 종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선된 총무원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주장하는 것은 종단 절차를 부인하고 종단 구성원이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호 스님이 "3월 4일 열린 초심호계원 제69차 심판부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호법부 측은 "성호 스님은 최근 본인 고소와 관련해 종로경찰서까지 찾아와 조사받은 정황도 있다. 건강을 이유로 서울까지 올 수 없어초심호계원에 불출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사 세민 스님 퇴진 토진 스님 22일 임명장

서울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 세민 스님은 3월 17일 총무원에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18일 오전 총무원 총무부와 재산관리인직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19일 현재, 내정된 후임 재산관리인은 현 부주지인 토진 스님으로 22일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16일 조계사 신도회(회장 이대각심)는 초하루법회 중 '조계사 주지스님 퇴진관련 신도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한때 총무원과 조계사 신도회간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사 신도회 임원단과 만나 조계사 관련 사업 진행에 있어 신도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뜻을 전했다.

이날 신도회는 "총본산 성역화와 조계사 운영에 공심을 갖고 소임을 맡아주실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경인년 桐華寺 주지선거에 즈음하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불조혜명(佛祖慧明)의 법운이 서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는 영산 팔공의 준령아래 대구광역시와 고령, 청도, 칠곡, 성주의 4개군 180만 불자가 청정한 신심으로 법화(法華)를 꽃 피우고 있는 한국불교의 긍지와 자존어린 교구이다.

이러한 제9교구에서 금년 4월에 실시되는 동화사 주지 선거에 즈음하여 연담·고송문도 원로를 비롯한 교구내 원로들은 지역과 교구의 종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의(法意)로서 간곡히 유시하는 바이다.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우리 조계종은 1994년 개혁종단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각종선거로 인한 병리와 폐해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가 속해있는 제9교구는 지난 세번의 주지선거를 통해 타 교구보다 그 정도가 심해 지역승단은 크게 분열되어 있고 선거후유는 심각의 도를 넘어 있다.

승려간의 법계가 무시돼 승단의 질서가 흔들리고 선거집단간에 야기되는 반목과 질시는 수미산 만한 골을 지어 수행자의 본분마저 위협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유실은 물론 출가정신 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어 더 이상은 좌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종단차원에서 공청회 등의 뜻있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아직은 문제의식 속에서만 있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4월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예견되는 비불교적이고 반승가적 행태에 대해 우리 원로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9교구내 지역과 연담·고송 양대문중의 원로들은 정좌속에서 스님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사부대중들께 다음과 같은 간곡한 법의(法意)를 드린다.

-. 화합승단과 청정교구를 위해 금번 동화사 주지는 연담·고송 양대문중을 비롯한 제 문중 및 지역불교계가 육화(六和)의 정신위에서 경선없이 산중고유방식으로 추대하길 염원한다.

-. 이를 위해 우리 교구원로들도 위법망구의 원력으로 합심어린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모든 사부대중이 일심(一心)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지난 3월 1일 송림사에서 개최된 연담문도 문중회의에서 금년 4월 동화사 주지선거에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후보로 고송문도 법광스님을 지명하고 의결한 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이에 금일 교구원로모임은 지난 연담문도 문중회의의 의결을 법열로 환영하며 그 소중한 뜻이 공포됨을 경하해 마지 않는다.

-. 부디 연담·고송 양문중 문도들을 비롯한 교구내의 모든 스님들은 양문중 단일후보인 법광스님이 산중공의에 의해 추대될 때 까지 원행(願行)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고 지역불자들도 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 우리 원로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법히 회향되고 이를 통해 우리교구가 새로운 승가상을 확립하고 청정교구 화합교구의 초석을 다져 지역사회와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에 기여하는 법연(法緣)으로 이어지길 삼보전에 정려히 축원드린다.

불기 2554년 3월 10일

⊛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 9교구 원로모임

화산 도원 원명 진제 무공 지성 현근 경희 혜선

기도 세레모니 가이드라인 만들어 공존해야

조계종 종평위 '자제' 공문 계기로 해외서도 관심

"슛!! 골이에요!! 대한민국이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밝히는 골을 넣었습니다!! 아~그런데 저 선수 기도를 올리네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6월 진행될 월드컵에서의 한 장면일 수도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3월 8일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중 개신교 선수들의 '기도 세레모니' 등 종교적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와 개신교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선수 사전교육을 통해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중계방송에서 종교편향 발언을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번 월드컵은 종교색을 벗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11일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골 세레모니를 제재하기 어렵다"며 "FIFA에서도 문자 표출 같이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불교계가) 스포츠 선수까지 관리하려는가"라며 "6월에 있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을 단속하라고 말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해외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했다. 특히 AFP는 11일 '불교인들이 기도 동작 금지를 요구했다(Buddhists seek ban on prayer gestures)'는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 불교와 개신교는 종종 불편한 관계(uneasy relationship)를 형성해왔다"는 말로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에 주목했다.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리는 특정종교만의 세레모니는 사회화합을 해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한마당이 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각자의 성숙된 신앙표현이 필요할 때다.

#스포츠 종교편향 어떻게?

축구 등 스포츠에서 세레모니는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하지만 종교적 세레모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 종교적 세레모니는 기도 등으로 종교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럽의 대다수 스포츠 선수들은 위화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독실한 개신교 선수인 브라질의 축구스타 카카는 'i belong to jesus'를 의미하는 양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세레모니를 펼친다. 이러한 표현방법에는 개인적 종교표출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06년 가톨릭의 성호 세레모니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스코틀랜드 축구의 양대 산맥 셀틱과 레인저스가 벌이는 '올드펌 더비'는 축구 외적인 면에서 더 유명하다. 아일랜드에 뿌리를 지닌 셀틱은 스코틀랜드 내의 가톨릭계를 상징하는 반면, 스코틀랜드의 자존심 레인저스는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로부터 독립하며 나타난 민족 · 종교 대립은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라이벌 관계로 자리매김됐다.

2006년 8월, 올드펌 더비에 나선 셀틱의 폴란드 골키퍼 아투르 보루치는 스코틀랜드 유명인이 됐다. 보루치가 레인저스 팬들 앞에서 성호를 그었기 때문이다. 보루치에게는 언제나 의례적으로 하던 성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루치의 행동으로 흥분한 레인저스 팬들이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은 보루치에게 공공질서 위해 혐의로 경고를 내렸다. 이 소식에 바티칸 교황청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들 왜 노골적인가?

종교문제로 전쟁 등을 겪어 온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역사 속에서 종교적 문제로 크게 사회가 갈라진 적이 없다. 이 밑바탕에는 종교보다 민족을 강조한 역사성과 민족문화로 자리하며 근대 종교갈등의 완충 역할을 한 유교와 불교를 들 수 있다.

역설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온건함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정하는 성숙한 종교문화의 발전이 더뎠다는 지적이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은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행위는 바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스스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며 "한국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나왔을 때, 이를 지적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안식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도 "종교 편향적인 행위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다. 조그만 것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에서는 한국 스포츠계의 과격한 종교표현이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선수들이 선수 육성과 선발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주축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종교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결국에는 후보 선수들과 자라나는 유망주들, 그리고 국민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국가대표와 종교 세레모니

다수의 종교 전문가들은 국가대표 선수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세레모니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공인은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는 포괄적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공인이다.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 대표다. 일정액 국민의 세금을 받고 뛰며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나서는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신앙을 표출해 다른 종교인들에게 위화감과 거부감을 줘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행중인 기도세레모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놔두자(49.8.%, 2054명)는 의견과 △사실 좀 불편했고 개선하자(49.6%, 2040명)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댓글 등에는 "2006년 월드컵 당시 이천수 선수가 쇼트트랙 오노액션 세레모니로 FIFA로부터 벌금 제재를 받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통쾌했지만 누군가에게 좋지 않으며 그를 고려해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로 공인의 신분이다"(ID: 대의원), "우리나라가 기독교국가도 아닌데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꼭 기도 세레모니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ID: 차한잔) 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개신교 측 조직투표의 의혹도 주장했다.

#종교 표현 제재법은 이견

기도 세레모니 자제에 대중적 공의가 모아지는 가운데 그 제재 방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안식 위원장과 김용표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규정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광서 종자연 대표,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등은 각 종교별 자성과 개별적인 의식개선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측 목소리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서 공직자 종교편향 처벌 조항이 누락됐듯, 아직까지 국민여론도 강제규정에까지는 모아져 있지 않다. 이번 불교계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공문요청에 '미흡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이 때문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스포츠인의 종교편향에 대해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는 장미란 선수가 아낌없이 특정종교를 선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김연아 선수(성호를 긋는 모습), 제갈성렬 해설위원이 개인 종교에 대한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계가 이들을 지적하기에 앞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준이나 공인에 대한 정의 등을 보다 확실히 정리해 대응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불교계가 진행중인 체육인 포교 등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는 "불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종교편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갖지 못하다보니 문제에 대한 대비책, 전략구성 등도 미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개선할 수 없다. 승가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타 종교의 공격적 포교를 묵과했던 그동안의 불교계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 무엇을 담나

종교편향에의 효과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종교편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불교계 종교편향 가이드라인에는 공인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점 제시를 전제로 무종교인에 대한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인 의식개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광서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이웃 종교, 무종교인에게 증오심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종평위의 골 세레모니 문제제기는 시점이 부적절했고 논리가 부족했다. 지도자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선행한 후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종교간 상호 이해, 공동선인 자비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종교간 대화의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종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대화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조직인 범불교대책위와 종평위의 인적구성과 프로그램 개선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 이상언 기자**

보루치 성호 세레모니에 '공공질서 위해' 경고

축구협, "노골적 아니면 제재 어렵다" 뒷짐

죽비와 목탁

어느 개신교 학자의 '착각'

며칠 전, 개신교계 언론에서 "벽에 부딪힌 불교국가 선교, 문제는 '이론종교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한 신학대 교수가 3월 15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원사회 속에서 타종교와 이단 · 사이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불교의 기원과 발달사, 기본교리, 세계관 등을 설명하며 불교국가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그 교수는 "개신교가 400여 년 동안을 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쳤으나 태국 인구의 1%도 전도하지 못했다"면서 "개신교 승리주의에 입각한 선교는 이미 벽에 부딪혀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불교는 '이론적'이어서 현대사회에서 종교이기보다는 '철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교는 현실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이 '운명의 굴레'속에서 체념하며 지내는 모순이 있다. 불교의 교리는 가장 뛰어날지는 몰라도 자비를 중심으로 하는 실행에 있어선 가장 못한 종교"라고 불교를 폄훼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개신교가 종교다원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주장에 있어서 타협이 불가하나 그 외에 있어서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교수가 말한 다원화의 지속은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다. 개신교 스스로 편협된 이론으로 무장한 채 다른 종교와 타협을 불가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서 캄보디아 · 태국 등 2000년 전통의 불교국가에서 일방적인 선교봉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종교다원화라는 단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

손자는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라 했다. 진정으로 불교국가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불교가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종교인 것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즉욕기 145,000
☎ 02)2004-8216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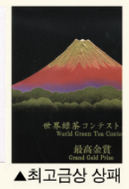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일주문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3월 27~2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수덕사 선미술관 개관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원담 스님과 고암 이응노 화백을 기린 불교계 최초 불교전문미술관 '수덕사 선미술관'을 3월 26일 개관한다.



인드라망 첫 정기월례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7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첫 정기월례법회를 시작한다.



경천 스님 복지 강연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경천 스님은 3월 19일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마음은 향기롭게, 행동을 거룩하게'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일불유협 대표 인환 스님 선

전 동국대 교수 인환 스님은 3월 13일 창립한 한일불교유학생협회 초대 상임대표에 선출됐다.



상도선원 기규원 교수 초청법회

서울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28일 큰법당에서 김규원 서울대 약대 교수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마주협 신임회장 지관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은 3월 5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차명상협 초대이사장 추대

자비선센터 지도법사 지운 스님은 3월 25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열린 한국차명상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김의정 중신회장 출판기념회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출판기념회 및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취임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카누연맹회장)은 3월 8일 열린 제25대 대한수영연맹 총회에서 연맹회장으로 취임했다.

연우치과는 '봉사·수행'의 기회

중앙신도회 부설 연우치과 정미화 신임원장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 사진)가 의료봉사 기금 마련을 위해 설립한 연우치과의 새 원장으로 정미화 원장이 임명됐다.

정미화 신임 원장은 "연우치과의 개원 취지인 '봉사를 통한 나눔, 나눔을 통한 희망 구현' 슬로건에 공감했다"며 "병원 수익의 사회 환원을 비롯해 불교계 의료복지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06년 출범한 중앙신도회 산하 의료 · 지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는 종합검진 중심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2008년에는 모금을 통해 치과 치료 버스 한 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동국대일산병원에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자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2009년 7월 중앙신도회 건물 내에 '연우치과'를 개원했다.

개원 당시 연우치과는 수익금의 일



정부분을 취약계층 위해 환원하기로 약정했다.

정미화 원장은 "평소 봉사를 하면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며 "연우치과는 내게 있어 봉사 · 수행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른 종교들은 해외 선교를 펼치기는 하지만 이익금을 주는 곳은 없다. 사업운영하며 이익금을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것은 불교계가 처음인 것 같다"며 "연우치과의 설립 취지를 듣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미화 원장은 "환자들이 치료도 받고, 치료비를 통해 봉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연우치과"라면서 "연우치과의 취지와 역할 등을 널리 알리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연우치과 스텝들과 최선을 다하는 진료 봉사로 불자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미화 원장은 연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있다.

박선주 기자 z00211@buddhapia.com

천융차오 대만대사, 자승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세번째)와 천대사(왼쪽 네번째)는 이날 한 · 대만교류 증진을 논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7일 오전 10시 천융차오 주한 대만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천 대사는 "불교교류로 대만과 한국의 관계 개선도 진척되길 바란다"며 "불광사의 포교 사례들이 한국불교 포교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한 · 대만 불교교류가 진흥되도록 상호노력하자"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사회부장 혜경 스님도 "한국과 대만 불교는 각자 특성이 있는 만큼 서로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장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서영길 SK상임고문 등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백양사, 아이티 기금 1000만원 전달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3월 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영천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아이티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시몽 스님은 "아이티 돕기에 늦게 동참해 죄송스럽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백양사를 비롯한 조계종 18교구 말사 등에서 모금한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3월 17일까지 아이티 기금으로 총 10억 7508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대구교구 종무원장에 청운 스님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은 3월 14일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신임 종무원장 청운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혜각 스님 등 300명이 참석해 청운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청운 스님은 대구 동구 대원사 주지로 대구경북교구 종무위원과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봉장학회 조직 및 선발과정 확립

원봉장학회(이사장 원봉)는 3월 12일 청주 보현사에서 열린 첫 이사회에서 충북대 곽종민 교수를 사무총장에 선임하고 장학 심사 및 선발과정을 확정했다.

원봉장학생은 각 사찰 주지 추천을 받아 성적과 품행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원봉 스님은 "최근 입적하신 법정 스님 말씀대로 무소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잘 해야 뒤에 오는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잘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능력이 되는데로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봉장학회는 2009년 원봉 스님이 인재불사를 위해 3억원을 희사해 설립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도약하는 포교사단 100년 준비

포교사단 출범 10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이 3월 1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포교사단 출범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단 출범10주년 기념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임장수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역대 포교사단장과 포교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10주년 기념법회는 사진전 · 영상을 통해 포교사단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도약하는 100년을 준비하기위한 자리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참다운 포교사의 길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우자(愚者)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묵묵히 지나는 바람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는 지자(智者)의 길이다. 좋은 나무들이 모여서 좋은 숲을 만들듯 다시 10년, 100년을 내다볼 줄 아는 포교사단이 되길 바란다" 며 포교사단 출범 1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행으로 욕심을 버리고 비로자나 법신불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듯 우리 포교사들도 포교사다움으로 그 길을 가야한다. 스스로의 기쁨으로 피어난 강가의 매화(江梅)처럼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포교사단이 되자"고 말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단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 에너지로 묵묵히 밑거름 역할을 한 포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포교사단이 초창기부터 군포교와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을 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는 탈북자(남북관계)와 다문화가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포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모인 500여 포교사들은 발원문을 통해 △원력포교 △글로벌 포교 △통일 포교의 길을 가기를 서원했다.

같은 날 동국대 법학관에서 포교사단 제2차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사단은 2000년 3월 12일에 설립됐고 그 후 매년 3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한마음공생실천과정

한마음선원 개최

"그냥 믿고 놓으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지어서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용기를 잃고 그러니까 오히려 갈 수 없게 된다. 공부가 안된다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생각도 놓고 편안히 자연스럽게 가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힘을 길러주는 '제15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 3월 27일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안양 본원에서 개최된다.

15기 교육생들은 가족 · 직장 · 인간관계 · 건강 · 경제 · 사회, 지구문제 · 한마음법의 이해 등을 주제로 조가 편성돼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은 3월 27일~6월 26일 매주 토요일마다 각자의 상황과 문제를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참구하기 등의 마음공부를 실천하고 그 경험들을 조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주지 혜원 스님은 "도반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되짚어 모두에게 이익 되는 공생의 도리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031)471-6926

이나은 기자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9대 회장단 및 임원진 취임대법회

제9대 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상임부회장 : 석보광대종사 (중앙불교조계종1세종정), 부회장 : 석혜륜대종사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 일시 : 2010년 4월 9일(음,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농심호텔 (허심청) 2층 대청홀 (부산지하철 동래온천장역 3번출구)

- 초대의 말씀 -

귀의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불자여러분들의 가내에 항상 충만 하옵기를 기원드립니다.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어느덧 15주년을 맞이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 **제9대 회장 석월인 대종사, 상임부회장 석보광 대종사, 부회장 석혜륜 대종사 및 임원진 취임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불자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4 (2010) 3월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석지산**, 회장 **석월인**
상임부회장 **석보광**, 부회장 **석혜륜** 화남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9대 임원진 명단 ◆

고 문 석인왕 대종사 (재)한국불교여래종종정
석일공 대종사 (사)대한불교원융종종정
석붕해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종정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3세종정

원로의원 석동산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종정
석법광 대종사 세계불교법륜종종정
석정암 대종사 (사)환국불교조계종종정
석혜지 대종사 대한불교해인종종정
석혜철 대종사 한국불교원각종종정
석동원 대종사 대한불교연화종종정
석양명 대종사 한국선불교대불종종정
석석봉 대종사 한국불교삼론종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해동종종정

이 사 장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정토종이사장
회 장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상임부회장 석보광 대종사 중앙불교조계종1세종정
부 회 장 석혜륜 대종사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감 사 석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아미타여래종종정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종정
재 무 석법정 대종사 조선불교대선종종정

상임이사 석의륜 대종사 한국근본불교창종주
이 사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종정
석청원 대종사 대한불교불광종종정
석보광 대종사 중앙불교조계종1세종정
석혜우 대종사 한국근본불교해동종종정
석일강 대종사 대한신불교천우종종정
석천강 대종사 (사)교단용화불교교령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임제종종정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종종정
석법홍 대종사 세계불교미륵대종종정
석혜명 대종사 금강불교조계종종정
석지일 대종사 한국불교대승법사종종정
석법산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종종정
사무총장 서병열 일붕신문사대표, **사무장** 배상광

사무처 : 서울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6층
전 화 : (02)756-1227, 전 송 : (02)774-1487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사찰경영지도자 과정
동국대서 1기 입학

국내 최초의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이 개강했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양동훈)은 3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 입학식을 봉행한다.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은 경영이 있는 사찰 운영, 사찰 경영과 중생회향을 목표로 개설됐다.

교수진으로는 성관 스님(동국대 상임이사), 보광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대학)를 비롯해 동국대 경영대학 소속 안종상, 이재환, 윤제철, 유석천, 성상현, 이원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와 노부호 서강대 교수, 정석원 조계종단 변호사,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소장 등이 외부교수로 강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의는 입학식 당일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이제는 사찰도 경영이다' 특강을 시작으로 32주 동안 매주 목요일 2강좌씩 오후 3~6시 진행된다.

한편, 사찰경영전문지도자 1기에는 前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낙산사 정념 스님, 불암사 일면 스님,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 진관사 계호 스님 등이 등록했다.

조동섭 기자

"소송 조정… 총장 선출은 후순위"
서불대 최용춘 신임 이사장 선출… 덕해 · 지욱 스님 갈등으로 학사행정 파행

파행적인 학사행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에 이은 신임 이사장 선출로 새 국면을 맞았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은 3월 17일 이사회의를 열고 최용춘 이사(한국교수불자협의회 회장 · 상지영서대 교수 · 사진)를 2년 임기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 최 신임 이사장은 차세희 前 보문 중 · 고 교장과 팽팽한 접전 끝에 4:3 한 표 차이로 이사장에 선출됐다.



최용춘 신임 이사장은 18일 인터뷰에서 "파행운영으로 교계 안팎에 물의를 빚은 서불대의 관선이사 이사장은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다. 근신하는 자세로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최 이사장은 "교과부의 기존 이사 전원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은 객관적인 · 백지상태의 상황에서 학교를 새로 만들어 가라는 의미일 것"이라면서 "이런 기대 속에서 선출된 이사장직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최용춘 이사장은 "보문학원 설립자인 前 이사장 덕해 스님은 훌륭한 분"이라면서 "덕해 스님이 서불대를 세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한국불교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건학이념 구현을 바탕으로 교내에 만연한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법인의 의사결정구조를 전원합의제로 선택했다.

최 이사장은 "가급적 이사회의에는 이사 전원이 참석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면서 "전원합의제를 기본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춘 이사장은 서불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송사 해결을 꼽았다. 현재 서불대는 직원의 퇴직금 소송을 비롯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얽히고 설켜 있다.

최 이사장은 "학교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을 조정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내 구성원 다수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총장 선출 문제에 관해 최용춘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최 이사장은 "외부에서 서불대 교원수가 많다, 총장 선출이 시급하다는데 교수1인당 학생수가 줄면 좋은 것이지 무엇이 문제냐?"며 "현황 파악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총장 등 인사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덕해 스님과 지욱 스님 측 인사로 양분된 서불대 구성원의 화합에 대해 최용춘 이사장은 "소송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구성원간 화합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최 이사장은 "서불대를 비롯한 보문중 · 고교 등 보문학원 소속 학교들이 참신한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춘 이사장은 동국대에서 법학과 학사 · 석사를, 숭실대 대학원에서 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84년부터 원주 상지영서대학교수로 재임중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과 강원도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원주시청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현재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불대는 설립자 덕해 스님과 前 이사장 지욱 스님의 갈등으로 인해 2년 여 동안 파행적인 학사행정이 물의를 빚었다. 2009년 말 소송을 통한 황윤식 총장의 복귀로 성승연 김명권 교수 등 해임 교원은 복귀됐다. 현재 황 총장은 임기가 만료되고 지욱 스님 측 이거룡 총장권한대행 체제로 학사운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0월 14일 파행 운영된 학사행정에 대한 책임과 공익적 이유 등을 들어 서불대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이어 2010년 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문학원의 임시이사로 조흥래(교직원공제회 이사) · 차명호(평택대 교육대학원장) · 최용춘(상지영서대 교수) · 차세희(前 보문중 · 고 교장) · 김복향(대전재능나라유치원장) · 도윤 스님(쌍용사 주지) · 오영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를 선임했다.

조동섭 기자

역대 최대 한국불교박람회 성료

2010 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18~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주)제이컨벤션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불교문화산업과 관련한 270여 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19~20일 전시장 무대에서는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구불교방송 음악회 '봄이오는 소리'가 열려 관람객들의 흥을 더했다.

18일 개막식에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와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대구BBS사장), BBS 김영일 사장,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허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우수한 한국불교의 향취를 느끼고 취약한 불교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은 "전국 단위의 불교박람회가 대구에 열리게 된 것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소년원학생 장학금 일일찻집 열어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3월 17일 청주 복대동 청미옥에서 소년원 학생 장학후원금 마련 일일찻집을 열었다.

행사에는 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 자비실천운동본부회장 해광 스님, 백연암 서경 스님, 용두사 현담 스님, 문수사 진성 스님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김재곤 소장 및 직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전 스님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연우와함께 조계종과 MOU
수익사업 활성화 모델 창출 나서기로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함께(대표 이재희)가 조계종과 수익사업 활성화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모델 창출에 적극 나선다.

연우와함께(대표 이재희)는 3월 1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제1기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사업MOU를 체결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인증자격 획득 △사찰 · 불자 생산 물품 판매 △불자생산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불교생산자인증마크 개발 △판매이익 불교계 회향 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번 MOU에 따라 조계종은 연우와함께에 5억원을 출자하고, 국장급 스님을 책임자로 한 전담지원반을 구성한다.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착한나눔 선정위원회'의 감사를 거쳐 1/3씩 주주인 조계종과 중앙신도회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희 대표는 "지금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기업이 없다. 법당에서 쓰는 양초 · 단주도 90% 이상 타종교 기업제품이다. 불자기업 지원과 제품 소비를 통해 불교계 역량을 결집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경헌 선재한의원 원장이 신임이사로 선출됐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삼성 홍라희 · 이재용씨 자승 스님 예방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전무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오찬을 겸해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사서실장 경우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자승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재단의 장학회 출범 후원회가 열렸다.

영동군 영국사 등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

영동군(군수 정구복)은 최근 보물 제533호 영국사삼층석탑이 있는 영국사 등 관내 문화재 9개소에 13억8200만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 ·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영동군은 매년 두차례 관내 20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영동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영불회 캄보디아서 의료봉사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인 영불회(회장 한승세)는 3월 19~20일 캄보디아 반테이 민체이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료 봉사활동에는 회장 한승세 흉부외과 교수를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 등 30여 명이 참가해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의약품을 나눠줬다.

청도불교사암聯 제4회 청도 유등제 개최

청도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7~21일 청도천변 파랑새 다리 일원에서 제4회 청도 유등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2지신을 형상화한 장엄등 특별전시와 소원등 달기, 유등 띄우기, <반야심경> 탁본체험 등이 펼쳐졌다.

한편, 유등제 행사기간 중에는 청도상설 소싸움 경기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청도 소싸움축제가 열렸다.

불교아카데미 MY리더스클럽 8기 모집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신성기)는 재가불자 리더십 프로그램인 'MY리더스클럽 8기'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MY리더스클럽 8기'는 4월 1일~7월 1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실시된다. 강의는 △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유마선원 이제열 지도법사) △종교의 미래, 불교의 미래(박광서 서강대 교수) △자비명상 '당신은 마음의 노예인가, 주인인가'(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 △한국의 문화 아이콘(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논리로 푸는 공의 세계와 반야바라밀(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등 1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02)2278-1087

문화재제자리찾기 슈베르트 피아노곡 '송어'로

슈베르트 피아노곡 '숭어'가 '송어'로 정정된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숭어'의 명칭오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져 내년 교과서부터 '송어'로 바꾸겠다는 회신을 3월 8일 받았다"고 발표했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의 원곡은 독일어로 'Die Forelle'이다. 이는 송어(민물고기)를 지칭하는 단어이며, 곡의 영문명 'A Trout' 역시 송어를 의미한다.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음악 전공자와 음악교사 대부분 슈베르트의 작곡명이 '숭어'가 아닌 '송어'라는 정확한 명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는 '송어'를 '숭어'로 가르쳐 왔다"며 "경술국치 100년의 시점에서 '일제에 의해 왜곡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숭어'란 명칭의 오류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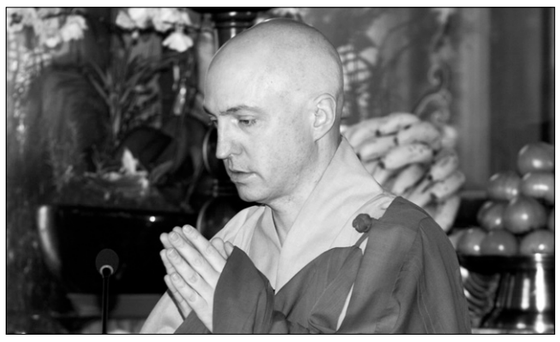


"우리 삶이 살아있는 법문"

현각 스님, 선학원 초청법회서 법문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리를 찾아 한국에 온 푸른 눈의 납자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가 서양불교보다 실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각 스님(독일 불이선원 선원장)은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3월 16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개최한 초청법회에서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했다.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이 3월 16일 선학원에서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꾸준한 선(禪)수행으로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본래면목에 머무를 수 있다"며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다만 생각에 집착해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법문을 시작했다.

현각 스님은 "습관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으킨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어 그에 반하는 것으로 갈등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선을 통해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갈등과 고통에 대한 해법으로 불교의 불이사상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이사상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재산이다"라며 "불이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며, 삶이 곧 법문임도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우리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법문이다.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이(不二)'는 불교적 의미도 있지만, 통일된 독일에서 활동하며 (분단돼 갈 수 없는) 평양 출신의 숭산 스님이 남북평화통일을 축원했던 것처럼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각 스님은 "실천적이고 살아있는 철학을 좋아하는 독일인들은 마음을 중심에 둔 불교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각 스님은 1999년 <만행-하버드대에서 화계사까지>를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스님은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독일 뮌헨의 '불이선원'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부처님 당시 여성수행자를 만난다

불교여성개발원 3.23~6.1 리더십 강좌

<숫타니파타>의 여성재가수행자인 '사마와띠'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 죽음 직전에 깨달음을 성취한 인물이다. 코삼비국 왕비인 사마와띠는 다른 왕비의 시기 · 질투 살해 음모에도 닥쳐온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직 깨어 있던 인물이었다.

부처님 당시 시여(施輿) 제일로 불렸던 '비사카'는 자신에게 남는 돈을 수행의 방편으로 사용했다. 비사카는 자신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해 몸과 마음의 고요함으로 깨달음에 한발 다가섰던 재가수행자였다.

이런 부처님 당시 여성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여성불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3월 23일~6월 1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내안의 불성을 실현하자'를 주제로 제6차 리더십 교육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초기경전을 비롯해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 속 여성재가불자에 내용을 시작으로 조직에서의 여성리더십, 불교여성으로서의 새로운 비전 세우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또, '평화통일 성지순례'를 비롯해 전나미 표현예술치료 전문가가 진행하는 예술매체를 이용한 내면치유와 비전을 세우는 시간도 마련된다. 동국대역경원 이미령 역경위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간절히 수행했던 인물의 삶을 지금 여성 불자들과 나누고 싶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한국 여성 불자들이 2600년 전 여성 재가수행자들의 모습을 투영해 지금의 삶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여성인재개발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경전 속 여성선지식을 만나 지금 여성 불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불자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이은영 원장을 비롯해 배금자 변호사, 이영호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 황수경 동국대 강사, 이미령 동국역경원 위원, 이화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 20만원. (02)722-2101 박선주 기자

장애아동 심리치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문심리치료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 · 이하 본동복지관)이 발달 · 정서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심리치료 프로젝트 '꿈을 찾아서'를 추진한다.

2010년 1월~12월 진행되는 심리치료지원사업은 약 2개월간 준비과정을 통해 대상자 9명을 모집했고 3월 24일 부터 아동 특성에 따른 개별 심리치료 및 상담으로 진행 한다.

심리치료지원사업 '꿈을 찾아서'는 △전문심리치료 △지지체계프로그램 △가족 상담사 간 네트워크구축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본동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 (02)817-8052 박선주 기자

장애아동 금전관리 교육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은 3월 26일 아동시설 앞마당에서 보광훼미리마트(회장 홍석기, 이하 훼미리마트)와 키자니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멋진 어린이의 나라라는 뜻의 '키자니아'는 아동 대상의 금전관리 체험 교육이다. 아이들은 키자니아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와 함께 금융투자 지식을 배우게 된다. 행사에는 60여 장애아동들이 이동형 편의점의 점장과 고객이 돼 상품 판매와 구매를 하며 경제지식을 습득한다.

박철우 사회복지사는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접객예절을 배우고, 보다 쉽게 경제개념을 이해해 금전지식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은 훼미리마트와 함께 아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전개할 예정이다.

이건준 훼미리마트 상무는 "이동형 편의점을 활용 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이나 소외지역을 방문해 물품 및 경제체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은정재단 장학후원회 출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산하 장학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재단)은 3월 16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장학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장학후원회는 고문단과 자문위원단, 운영위원단으로 구성됐다.

5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조기송(사)환경과사람들 공동상임대표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자문위원단은 9명으로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 자문위원장을 맡아 은정재단 장학후원 사업을 지원한다. 은정재단의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될 운영위원단은 위원장 이진화 경불련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꾸려졌다.

은정재단 윤승헌 과장은 "후원자와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후원자들이 은정재단의 인재불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와 장학후원회 간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이웃종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

한 · 중 · 일 천주교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펼쳐

"코레아 후라! 코레아 후라! (대한국 만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조선 침탈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권총을 내던지고 외친 소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모세'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고 불릴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에 앞서 총알에 십자가 표시를 새겨 넣고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감옥에서도 이토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며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가톨릭 신자들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안 의사의 순국 10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한 · 중 · 일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선교를 후원하는 평신도 모임인 '직암선교후원회', 안중근 의사가 투옥됐던 뤼순 감옥 인근의 중국 다롄(大蓮) 한인성당, 일본 오타시 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인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

직암선교후원회와 다롄 한인성당은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주제로 한 원고모집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카페를 통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묵주기도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안 의사의 순국 100주기인 3월 26일 오후 6시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는 "훌륭한 가톨릭 신앙인이었으며 동양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꿈꿨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사랑의교회 최다 장기기증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국내 단일기관 · 단체로는 최다 장기기증등록 기록을 세웠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는 "사랑의 교회가 3월 3일 장기기증 예배에서 800명, 7일에 5270명의 교인이 장기기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력해 1993년에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교회는 1999년, 2006년,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고, 올해 3월 3 · 7일 진행한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으로 총 1만6083명의 장기기증등록 희망 접수를 받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 기록은 현대중공업그룹이 2008년에 세운 1만5315명 장기기증 등록기록을 깬 단일기관 · 단체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개강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강 당일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횡사 악사요...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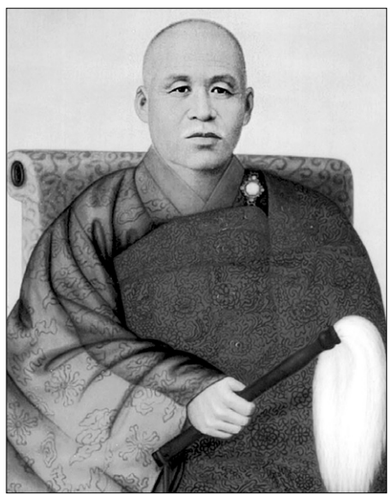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조계종의 역사의식은 건강한가?

김광식 교수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서 용성·학명·한암 스님 등 선승 조명





용성 스님은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식이다. 스님은 선농불교 · 역경불교를 실천하면서 불교개혁운동에 앞장섰다.

출가자의 혼인과 육식 행위는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 정화와 분규의 단초가 됐다. 근현대 선지식이었던 용성 스님(1864~1940)은 두 차례에 걸친 건백서를 통해 대처식육의 금지를 촉구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에서 '용성의 건백서와 대처식육의 재인식'을 통해 용성 스님이 조선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했던 1920년대 당시를 중심으로 대처식육 논란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용성 스님은 1926년 5 · 9월 뜻을 같이 하는 출가자 127인의 날인을 첨부해 "불법에는 대처식육의 설이 없다"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당시 일제 및 불교계는 용성 스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법개정을 통해 스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단행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건백서 제출 이후 대처의 풍조가 점차 확대돼 1930년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80%가 대처승도 주지가 가능할 뿐더러 대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용성 스님이 건백서를 제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인 학승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한 이후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된데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1925년 유학생 출신의 대처승이 본산 주지에 취임하기 위해 본산 사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본산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친일파이자 불교도인 이완용을 내세워 일제 당국에 로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매일신보'를 인용해 "일제가 승려의 대처식육을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합법화시켜 그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에는 종교별 정체성을 상징하는 계율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계율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어길 경우 파계승이라고 해 승단에서 내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스님들이 대처식육을 별 고민 없이 수용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김광식 연구교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김 연구교수는 "개항과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해제 이후 승려의 신분상승 및 사찰 안정 등의 요인으로 승려 인권이 고양됐다"면서 "스님들의 일본 유학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로 승려는 천민으로 매도당하고, 한양의 사대문 출입도 금지 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억울한 대우를 받던 승려가 개항(1876) 이후에 서서히 신분이 상승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교수는 "일본불교가 유입되면서 일본불교의 모방을 통해 한국불교는 산중에서 도회지로 나가야한다는 분위기에 고취됐다"면서 "만해 한용운이 舊 한국정부와 통감부에 '승려 결혼은 자유스럽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승려의 결혼문제가 사회에서 용인시된 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김광식 연구교수는 "최근 승려들 사이에서는 육식에 대해 관대한 추세이고, 15년 전에는 학술토론회에서 은처승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며 대처식육에 대한 현 불교계의 인식상황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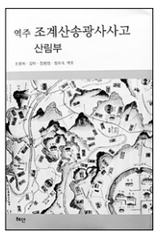
김 연구교수는 "조계종은 식민지 불교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전개한 불교정화운동에 의해 재건된 종단"이라며 "조계종단 구성원이 어떻게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뇌 및 입장의 표명을 말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종단 차원의 자정 기능과 역사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책에는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한암의 종조관과 도의국사 △송서암의 불교개혁론 등 근현대 선사를 불교사상사적으로 재조명한 저자의 연구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나은 기자

조선 말~일제시기 산림분쟁 담겨

조명제 교수 등 '조계산송광사사고-산림부' 출간



사지는 특정 사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의 기본 자료다. 동시에 사지는 미술 · 건축 · 사원경제 · 지방사회 · 문학 · 문화재의 보존과 조사 등 전통문화 전반과 폭넓게 관련된 자료다. 자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지는 한문으로 돼있는데다가 불교사 · 한국학 등 종합적인 기초지식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산송광사사고(史庫)-산림부>가 완역돼 출판됐다(사진 · 혜안출판사 펴냄). 인물부 완역에 이은 성과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 김탁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용범 부산대 외래교수, 정미숙 신라대 외래교수가 번역에 참여했다.

책에는 산림부의 내용인 송광사의 지리, 봉산, 벌채 및 산림을 둘러싼 분쟁 등을 담고 있으며, '주지선생안(住持先生案)'이 수록돼 있다.

조선시대 말과 일제시기, 송광사와 지역민 간의 산림이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공문과 진술서, 계약서, 시말서 등이 수록돼 분쟁의 진행과정도 알 수 있다.

또 책에는 송광사와 선암사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사례가 소개돼 있어 사원의 사유림 지배 실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명제 교수는 "산림부 자료는 조선후기 불교사회경제사의 기초적인 자료이면서 산림정책 및 지방사회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대중화 기여… 관련 연구 미흡

김성연씨,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명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중심역할을 했던 교무원의 활동과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동국대 박사과정 김성연씨는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3월 13일 개최한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에서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구조와 운영'의 주제를 발표했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하 교무원)은 1922년 5월에 세워진 단체로 본산 주지들이 불교유신을 내세우던 총무원 세력에 대응하며 설립됐다. 교무원은 총무원과 팽팽한 경쟁구도를 만들어오다 총독부의 후원으로 1922년 10월 62만1799원51전의 자산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해 불교계 최초로 재단법인을 출범시켰다.

이후 교무원은 1924년에 총무원 세력을 흡수 통일했고, 통합된 불교계는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 가운데서도 학교 경영을 통한 교육 사업은 불교계가 근대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다.

김성연씨는 "교무원은 1923년 재정난을 겪고 있던 천도교 설립학교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부행위로 들어온 1종 재산과 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 8%의 이자금인 2종 재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 번도 2종 재산의 수납이 달성된 적이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교무원은 설립 이후 교육과 포교사업에 중점을 뒀다. 김씨는 "교무원은 근대식 학교인 보성고보를 경영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등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1930년대에 들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채에 시달렸지만 불교계 전체를 대표해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 각 사찰로부터 재산을 모으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연씨는 "교무원이 재단법인 형식을 갖추고 1920년대 불교계 대부분의 사업을 총괄했던 중심기관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교무원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전통사찰 정비

경기도, 29곳에 23억

경기도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수원 팔달사 종무소 개축 등 도내 29개 전통사찰에 23억원을 들여 보수 ·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9개 사찰의 대웅전 삼성각 미타전 등 불전 · 법당 시설의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선원 요사채 등 부대시설과 등산 ·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내 전통사찰은 99개, 문화재 보유사찰은 52개로 이들 사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5점을 비롯해 도지정문화재 101점 등 136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이은정 기자

경주 열암곡 · 삼릉계 보고서 발간

국립경주문화재硏 "문화유산 원형관리 지침서 되길…"

경주 남산지구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계곡과 능선 정상부 곳곳에 다양한 석불 · 석탑과 마애불이 산재해 있다.

경주 남산에서 2007년부터 문화재 보수 ·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열암곡 · 삼릉계 석불좌상 2구를 보수 · 정비한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가 발간한 <경주 남산 삼릉계석불좌상 보수 · 정비 보고서>와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 · 정비 보고서>에는 열암곡 · 삼릉계 석불좌상이 발견된 때부터 보수정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열암곡 석불좌상이 복원된 모습.

연구소는 2007년 3월경 삼릉계 석불좌상이 위치한 주변 일대의 발굴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수 정비안을 마련하고, 2008년 12월 중순 무렵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

열암곡석불좌상은 발견 당시, 불상의 불두는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광배는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돌입한 이후 1년간의 복원을 통해 현재 3단 대자 위에 열암곡석불좌상을 안치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 지병목 소장은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본래의 모습을 다시 복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참고서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이신 동주원명 큰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과정을 마친 스님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전 재 의식을 중심으로 월 2회 직강을 해 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 ①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49재, 점안의식 등
② 불공의식(전통 상용의식)
⚜ 강의일시 :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오후 2시)
- 첫강의 : 2010년 3월 29일(월)
⚜ 강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홍원사
⚜ 모집인원 : 00명
⚜ 연 락 처 : 02)2658-3100, 010-3840-0624
(홈페이지 www.hongwon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늘 바쁜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탓에 저희는 첫 아이를 낳고부터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무뚝뚝한 남편과 대화의 시간이 줄다보니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이야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남편이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 제가 어떤 큰 잘못을 해도 그저 말이 없이 뒤처리를 해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만, 답답해 너무 힘듭니다.

A 내담자께서 남편의 장점을 보고 이야기 하는 모습에서 남편의 묵묵함과 깊은 배려를 인정하는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서로 지적하는

무뚝뚝한 남편과 대화 끊어져 답답해요
늘 아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전하세요

식의 대화법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남편은 마음을 닫고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이나 말에서 남편의 욕구를 찾아 그 욕구와 현재의 감정을 공유 ·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합니다. 내담자께서도 위대한 모성의 힘으로 아이는 물론 남편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성의 힘으로 극복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힘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낳게 되고, 긍정의 에너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로 남편에 대한 소소한 불만을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항상 남편의 말을 듣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직장에 대한 미련과 현재 ·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족에게는 어떤 이로움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 직장에서 남편의 위치, 조건, 만족도 등을 부부가 공유한 다음, 두 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주말부부

Q 사람의 업, 인연, 운명, 사주와 같은 것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기도도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A 우선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금생은 전생의 반영이고 내생은 금생의 반영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에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며 미래의 삶은 현재의 업에 상응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전생 업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업을 숙명론으로 잘못 아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업이란 개인의 생활을 청산하거나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세요.

선한 혹은 악한 의도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인을 형성하고 개인의 금생에서나 미래 생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날이 갈수록 선하게 되며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무지와 무명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온함으로 살게 되면 업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닦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궁금해 하신 업, 인연, 운명, 사주는 구슬을 실에 꿰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으로 마음을 닦아 선업을 쌓고 좋은 씨앗을 키우게 되면 비슷한 파장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행복한 삶, 좋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업이나 악업을 짓지 않고 일체의 생사윤회와 고에서 벗어나 해탈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 법을 나침반 삼아 부지런히 수행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하지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지킬 힘을 갖게 되면 타고난 사주에도 휘둘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혜롭게 살아 갈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불자 수용자 재범률이 제일 낮아요"

사랑법당 탐방
영등포구치소 사홍회



청룡선원 합창단이 불기 2551년 봉축법회에서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합창단은 음성공양 뿐만 아니라 구치소 불교행사 때 자원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치소

모든 중생이 마음의 위안 얻어 자유롭기를 발원
27년째 수요법회… 법운 스님 20년 동안 주관해

"이곳이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함께 했던 이들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친구 · 가족도 등을 돌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요. 스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10년 형을 선고 받은 한 재소자는 법운 스님(청룡선원 주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마주 앉아 조용히 듣던 스님이 말했다.

"구치소 생활이 많이 힘들지요? 이해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만큼 친구와 가족들도 많이 힘이 듭니다. 재소자님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파했을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범죄 행위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지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 잘못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참회의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매일 그들을 위해 108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재소자의 손만 잡고 있었다.

3월 10일 춘삼월의 아침은 눈 소식이 봄꽃을 대신하고 있었다. 전국은 다시 꽁꽁 얼어 붙었다. 추운 날씨에도 영등포구치소 법당을 찾는 재소자들은 많았다.

영등포구치소 법당에서는 27년 째 수요법회가 열린다. 이 날도 사홍회(회장 이명우, 영등포구치소 불자 교도관 모임)와 광명시 청계선원 자원봉사자 7명이 법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홍회 회원들을 비롯한 불자 교도관들은 법당으로 향하는 재소자에게 합장하며 마음의 인사를 건넸다. 이들의 따뜻한 온정에 법당 안은 훈훈했다.

청계선원 법운 스님은 20년 동안 영등포구치소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유상현 사무국장은 "법회 때 마다 법사스님을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운데 법운 스님 덕분에 법회가 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운 스님은 "재소자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에서 시작한 법회가 벌써 20년이 됐지만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여건이 넉넉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교인으로서 중생들의 힘든 마음에 빨리 다가가 위로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사 스님의 원력과 사홍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영등포구치소 법당에서 열리는 불교 기초교리강좌에 빈자리가 늘고 있다.

구치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교리지도는 배규호 · 임덕신 법사(조계종 포교사단)가 돕고 있다. 10년간 영등포구치소에서 교리강좌를 지도해 온 배규호 법사는 "향냄새가 좋아서 법당을 찾은 수감자들이 법문만큼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다양한 교리법을 생각해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배 법사는 "구치소 내 교리강좌 수강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는 지원과 관심이 한 이유"라고 귀띔했다.

교정인불자회 유성현 사무국장은 "이웃종교는 종교인이든 봉사자든 교정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하지만 불교 법회는 스님 몇 분과 사찰 봉사단에서 지원하는게 전부"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수용자들은 떠들썩하게 노래 부르고, 힘들다고 하면 손부터 잡아가며 기도해주는 쉽고 편한 종교로 가는 추세다.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불교 법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등포구치소에는 광양 청룡선원을 비롯해 신촌 봉원사 스님들과 합창단, 봉사단 등 소규모 단체가 찾아와 법회를 이끌어 왔지만, 마음만으로 법당을 찾는 수용자들 마음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담당 김민성 교도관은 "사홍회 회원들이나 법사스님,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이 재산이다. 수용자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만큼 불자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신행생활이나 요구사항을 돕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당을 찾아오는 수용자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사홍회의 사정도 여의치 만은 않다.

박덕수 교도관은 "요즘 사홍회에 신입회원이 없다. 과거 어린이 · 청소년 포교부분이 미약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불교계가 체계적인 포교 전략을 수립해 군대 ·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 ·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영등포구치소 사홍회 교도관들의 보람이라면 불교 출신 수용자들이 재범률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박 교도관은 "가끔 구치소를 순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그럴 때면 함께 기도한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용자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날까지 법향을 전하는 영등포구치소 불자 교도관들의 교정교화는 계속될 것이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영등포구치소 사홍회는?

1990년 12월, 불자교도관 18명이 수용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주고자 창단했다. 사홍회는 현재 38명의 교도관이 법회 준비와 불우수형자 · 경비교도대 · 소년소녀 가장 등을 꾸준히 지원 중이다. 또 사홍회 회원들은 매월 정기법회로 회원간 연대와 신심을 다지고 1년에 두 차례 가족동반 성지 순례 길에 오르고 있다.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❶ 수경 스님이 기도문을 낭독한 후 소전식을 하고 있다.
▲❷ 4대강 사업저지운동을 위한 기도도량 여강선원은 3월 13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❸ 레게그룹 '윈드 씨티'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음악 공연과 함께 장난감 포크레인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수경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

"4대강 사업 저지 오직 기도뿐"

새만금을 통해서 이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진솔하게 몸과 마음을 던져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일을 막아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 이 시대, 이 땅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계 지도부에까지 불편한 심기를 전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봉은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4대강 문제를 갖고 현장에 캠프를 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종교계가 대신 물꼬를 터야 합니다. 여강선원은 종교계 결집은 물론 시민 환경단체와 연대해 4대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열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은 3~6월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을 비롯해 국내 · 외에 4대강 문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가톨릭 신부님, 미국인 선교사, 목사 등 종교인 조직을 구성해 국제기구에도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전할 것입니다.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4대강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응점을 찾겠습니다.

선원은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비우는 작업 공간입니다. 비움으로 4대강 문제의 핵심과 해결 과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을 찾고 힘을 결집시키는 일에 모두가 동참합시다. 가정, 사무실 어디든지 발원,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가 모아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눈물이기를…

남한강 여강선원 개원

여강 여주보 9.1%, 전국적으로는 12% 공정

'강처럼 살겠다'는 신념으로 강 살리기 나서

경기도 여주 신륵사 앞 강변에는 곱디고운 금모래가 빛나는 여강(驪江)이 있다. 김소월 시인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며 노래했던 곳이 이곳일 듯 싶다. 삶이 고된 이에게 여강은 유유히 흐르는 모습만으로도 소리 없는 위안이었다.

2010년 어느 봄날, 찾아간 여강에서는 난데없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늘 평화로웠던 여강은 기계음으로 가득차 잔잔한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끔찍했다.

여강 여주보는 정부의 4대강사업의 핵심지역 16곳 중 한곳이다. 여주보 건설작업은 이미 9.1%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1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3월 중순부터 공사가 본격화 되면 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삽질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환경운동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화계사 주지)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스님은 3월 13일 '강처럼 사는 집' 여강(如江)선원을 개원했다. 4대강 사업 저지운동에 본격적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컨테이너 박스 2개로 만들어진 선원은 여주 신륵사 매표소 옆에 세워졌다. 여강선원은 신륵사 뿐 아니라 남한강 중류 여강(驪江) 여주보 공사현장과도 지척에 위치한다. 선원에서 바로 보이는 여주보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강처럼 사는 집' 여강선원은 강을 살리고자 하는 이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공간이다. 선원에서는 24시간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뭇 생명을 위한 도보순례, 수륙제 등 참회와 성찰의 기도가 이어진다.

이날 개원식에는 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재일 사찰행태연구소장, 신경림 · 박남준 시인, 최병성 목사, 홍타원 교무, 이종걸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수경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개원식 사회를 본 현각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성찰로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동일한 방식의 대응 대신, 개인 및 사회가 함께 지구와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임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4대강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원 개원 취지를 밝혔다.

수경 스님의 행보를 격려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결의가 묻어났다.

신경림 시인은 "국토가 조각조각 나고 있다. 강을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어찌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은 단순 자연파괴, 환경오염이 아니다. 1000년, 1만년이 지나도 되돌리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욕하는데 그치지 말고 모두가 적극 나서야한다. 시대의 죄인이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는 "여강선원 개원은 타성, 무심의 생활을 죽비로 때려 깨우는 행위"라며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준 시인은 '다시 또 여강에 몸을 던져'라는 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시는 개탄에 가까웠다. "하루아침이면 말이 바뀌는 경박하다 못해 야비하고 쥐새끼처럼 사특하고 탐욕스러운 이명박 정권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태, 설마, 외면, 나 하나쯤이야 만행이 살겁의 만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긴 시가 낭독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의가 숙연해졌다.

수경 스님은 '생명의 강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강가에서, 이 땅의 생명줄인 강가에서, 남한강가에서, 한강가에서 하늘과 땅과 물과 바람의 혼들에게 온 몸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중략) 땅과 물과 햇빛과 바람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감사의 편지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마지막 눈물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문 중반에 이르러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 하염 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스님은 기도문을 불에 태워 날려 보냈다. 슬픈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천혜의 금 · 은 모래가 빛나는 여강 주변을 순례했다. 억겁의 시간과 인연이 만들어 낸 곳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례자들은 비통과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순례자들은 한마음으로 여강선원 개원이 참회와 자성의 기도로 원력을 모아 4대강 저지의 지혜로 발현되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포크레인이 할퀸 여강의 응어리를 풀어 주기 위해 순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로 대신하는 기도뿐이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여주 신륵사 경내에 자리한 여강선원 개원식에는 수경 스님의 4대강 사업저지 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주 신륵사 경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여주보 공사 현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3cc면 백혈병 환자 한 명 살려

생명나눔 부산본부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사업 등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동명대에서 3월 17~18일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7년 시작해 4년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에는 2010학년도 신설된 동명대 불교학과 신입생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교내 곳곳에서 보시행을 실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차후 부산지역 동의대, 부경대, 동아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는 2007년 총 7차에 걸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캠페인에서 504명, 2008년 9차 903명, 2009년 10차 633명 등 1740여 명에 이르는 기증 희망자를 모아왔다.

조혈모세포의 기증은 단 3cc의 헌혈만으로도 백혈병환자 한 사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범 스님은 "앞으로 타 대학교에서도 진행될 캠페인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기를 바란다"며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 853-0429

박지원 기자

제2의 인생 여는 기회

용호복지관 2010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213명에게 든든한 일자리가 생겼다. 65세부터 80대에 이르는 이들의 제2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16일 복지관 내 2층 강당에서 '2010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213명은 1년간 지역 사회 내에서 어르신만이 가진 연륜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통정리 및 환경정화, 우범지역 순찰 등 4개 사업영역에서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실버아이사랑사업단'에 파견돼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 · 노 케어단'에 파견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복지관 치매노인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출산육아가정도우미'에 파견될 어르신들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육아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비용 및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은빛강사단'으로 구성돼 지역 내 교육기관에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발휘하게 된다.

이춘성 관장은 "이번 사업이 참여자들의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부산지사 : (051)632-0064

책 옆에 두고 수행 방편으로

부산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 "불서는 자아성찰 충족"

3월 11일 원적에 든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그동안 풀어 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언이 전해지자 스님의 책마다 유례없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법정 스님의 법향을 조금이라도 간직하려는 이들로 인해, 교보문고는 5배 이상 도서판매율이 증가했고, 인터파크도서의 경우 베스트셀러 1~3위를 스님의 저서인 <무소유> <일기일회> <아름다운 마무리>가 차지했다. '법정 스님 효과'는 20여 종의 스님 저서를 넘어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을 통해 스님이 즐겨 읽던 책과 함께 불교서적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불교서적 유통의 중심인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사진)를 만나 불교도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불자 여부를 떠나 대중의 불교서적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전 및 스님을 위한 교재 위주의 어려웠던 불교서적이, 종교간 벽을 허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출간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 불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영광도서는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았다. 김윤환 대표(부산시불교실업인회장)는 "전국 유명서점은 마진이 많이 남는 서적을 매대에 주로 비치해 법정 스님 저서의 품귀현상에 유난히 반응한다"며 "입적과 관련한 언론의 집중조명으로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스님의 책을 만날 수 없을 것이란 조급함이 사람들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윤환 대표는 "저자의 특정 종교에 대한 개념보다는 정신문화적 차원에서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을 움직이고 있다"며 "불교서적은 진리와 자비가 바탕이 돼 있어,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에게 스스로를 성찰하며 허전함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최근의 일이다. 오랜 세월동안 일반 독자들과 불자들은 불교 서적에 대해 무관심했다. 책은 곧 공부의 다른 이름이었고, 책 속에 담긴 불교를 읽는다는 것은 어렵고 무거운 공부를 해야 한다는 편견을 만들었다. 하물며 불자가 아닌 경우, 불교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굳이 불교서적을 찾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윤환 대표는 불자 독자들이 불교 서적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배고플 때 신호를 주는 위와 달리, 우리의 뇌와 마음은 독서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나 가방 속, 침대 머리맡, 자동차 등에 항상 책을 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법정 스님이 주석하시던 불일암 해우소에는 항상 책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 읽든 안 읽든 책을 항상 가까이에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느 덧 곁에 있는 책이 부담스럽지 않아져 읽는 순간이 오면 절대 폼을 잡지 말아야 한다. 책은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책상 정리정돈부터 하게 되면 정작 독서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30초, 1분 남짓의 여유에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30초라는 짧은 시간동안에도 책 한 페이지 이상을 읽을 수 있고, 30초 독서의 습관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영광도서의 매장 중심에는 종교 서적 코너가 있다. 그곳에는 다른 서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일반 베스트셀러 혹은 마진이 많은 서적이 아닌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 서적이 비치돼 있다.

김윤환 대표는 "종교 서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표본이자 지침서"라며 "40여 년 전에는 이웃종교에 비해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극히 드물어 불교 서적을 수소문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불교 서적이 많아지면서 잠들 때까지 가슴에 품고 싶은 불서들을 만날 때마다 환희심에 벅차 올랐다"고 회상했다.

항간에 '불립문자(不立文字)'에 얽매여 문자로써 가르침을 얻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일 뿐, 수행의 한 방편인 불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살면서 즐거울 때는 웃으면 되지만, 슬플 때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는 책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거야?'라며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 화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책은 결국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약이 되고, 책 속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어떻게 책, 그리고 불서를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기자

책 판매대금 아이티 · 칠레로

진제 스님 네 번째 법문집 '石人…' 출간



진제 스님이 해운정사에서 출판기념법회를 하고 있다.

아이티 · 칠레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진제 스님의 출판기념식이 봉행됐다.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3월 16일 진제 스님의 네 번째 법문집 <石人은 물을 긷고 木女는 꽃을 따네>의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간된 <石人은 물을 긷고 木女는 꽃을 따네>에는 진제 스님이 다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와 나눈 심도 깊은 대담과 철마다 전국 참선수행자들에게 내린 상당법문(上堂法門), 제1회 국제무차선대법회의 법문 등이 수록됐다.

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직 선향(禪香)이 천리만리 흘러가기를 바랄 뿐, 이 법어집을 접하는 이들마다 선의 향기에 흠뻑 취하고 진리의 참맛을 누린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극락정토가 지금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아이티와 칠레 대지진 참사지역의 난민들과 국내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마음을 일으켜,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선업을 회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허원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법문집 속에는 상당법어와 대선지식들과의 법담과 문답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참선법과 '참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신도연합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진제 스님의 새 법문집 출간을 축하하고, 아이티 · 칠레 난민 구호기금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당일 책 판매대금 1500만원은 아이티 · 칠레 난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4월 18~20일, 26~28일 봉행

4월 부산 · 경남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인 범어사와 통도사에서 경인년 보살계를 수계하는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2-7182)는 4월 18~20일 금강계단에서 혜남 스님을 전계사로 경인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051-508-3636)는 4월 26~28일 금강계단에서 흥교 스님을 전계사로 제110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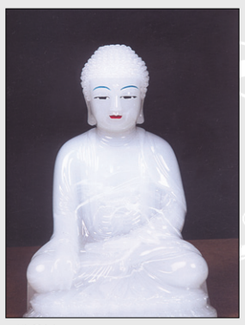
보살계는 대승보살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經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실천해야할 덕목이다. 경전에 따르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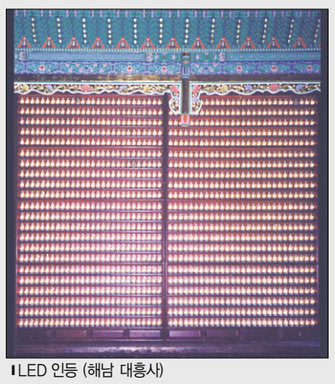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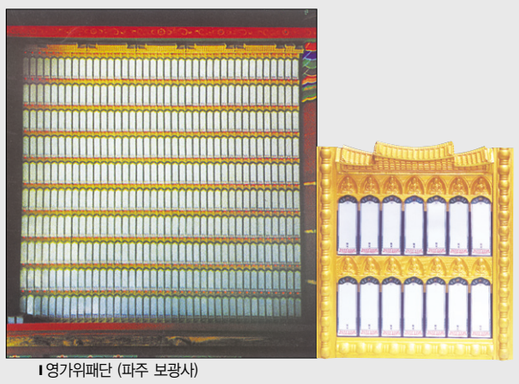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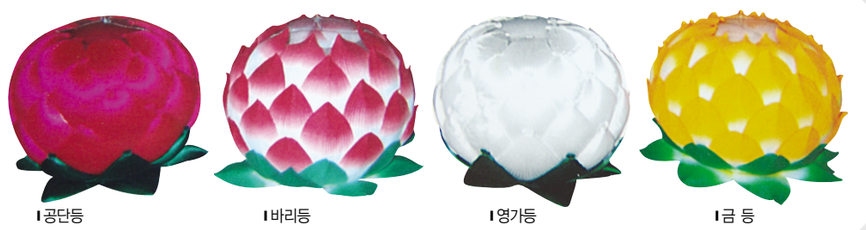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공단등 · 바리등 · 영가등 · 금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광주전남신도회 지용현 회장 선임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단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신도들을 대표하는 신임회장에 지용현 회장이 선임됐다.

지용현 신임회장은 "전래된 지 100년 된 타종교는 벌써 자신의 문화를 발굴하기 시작한다"면서 "광주전남신도회가 앞장서 한국불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반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법회는 4월 1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봉행된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법회와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취임법회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전남불교신도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원융화쟁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관한다.

한편 광주전남신도회는 3월 24일 신임 신도회 구성과 지역 현안,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최초 국제불교문화 박람회

4월 15~18일 광주컨벤션센터… 사찰 · 단체 · 기업 교류의 장

호남지역 최초로 빛고을 광주에서 전통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개최된다.

4월 15~18일 광주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의 공존'을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100여 업체가 150개 부스를 통해 호남지역 불교문화와 산업, 사찰문화, 친환경, 웰빙산업 등을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 외 사찰과 불교관련업체 및 기관 · 자치단체가 만나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교문화산업전시관에는 △사찰건축, 리모델링, 석재, 기와, 불교조각, 불상, 범종, 탱화, 인등, 불전함 등 불사용품과 △불교서적, 음반, 연등 염주, 향꽃이, 향, 법복, 생활한복, 가방, 방석, 신발, 모자 등 불교생활용품 △팬시용품, 공예용품, 차, 다기, 다구, 섬유 등 불교문화상품이 전시된다.

각종 차 등 건강식품, 납골당, 납골함 등 불교장례 관련 용품과 불교의상 전시 및 패션쇼, 범패 · 법고 시연, 불교무예 시범,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등 문화 행사도 마련됐다.

호남지역 4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은 "이번 박람회는 불교산업 교류 및 발전, 사찰운영, 포교전략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호남의 대찰과 주요사찰들이 불교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스님은 "우수한 전통문화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지역의 문화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박철희 엑스퍼트 대표는 "한국불교는 전통문화가 잘 보존돼 있고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하다"며 "박람회는 지역사찰과 불교단체, 불교용품 및 산업들을 신도들과 일반인에게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찰이 지역과 연대해 지역문화와 경제에 공헌해야 한다"며 "2012년 여수박람회와 연계해 불교계 자산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지역으로 4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등에서 사찰체험관을 설치하고 사찰홍보 및 템플스테이를 직접 소개한다.

한편 박람회는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광주 · 전남지사, (주)엑스퍼드가 주최하고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여수세계박람회범불교위원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한다. (062)383-632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광주광역시 동구청 불자회

"시민에게 회향하는 마음이 중요"

광주시 동구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끼고 있다. 이런 연유로 동구는 증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원각사 등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사찰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일까. 동구는 광주에서도 유독 불심이 깊은 곳으로 소문났다.

광주 제일의 불심을 자랑하는 동구의 동구청불자회(회장 박찬상) 역시 다른 지역 공무원 불자회 이상의 불심을 자랑한다.



왼쪽부터 정운천 간사, 노정순 재무, 박찬상 회장, 노기욱 총무.

동구청불자회는 2005년 5월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을 지도법사로, 이종현 초대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과 400여 불교계 인사, 불교신행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됐다.

동구청불자회는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와 화합을 바탕으로 구청발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설립, 월 2회 법회와 하계수련법회, 불교교리 공부, 사찰예절, 회원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의 인도중국불교사 강연과 무등 스님의 <천수경> <목련경> 강좌는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만, 불교역사에 대해 심도 있는 법문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불자회에서 마련한 불교사 공부는 불교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찬상 동구청불자회장은 뒤늦게 시작한 불교공부에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구청불자회 활성화'가 화두라는 박 회장은 "업무로 인해 평소 많은 사람을 만나 음주를 하는 편이지만, 수요일만큼은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 말씀에 푹 빠진다"고 한다.

박 회장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만큼 올해는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동구청불자회는 관내 사찰과 연합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영 · 호남 교류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차지원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노기욱 총무는 "5년간 부처님 오신날이면 동구불교협의회와 연대해 자비의 떡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비의 떡 나누기 등을 확대해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간사는 "하계수련회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바쁜 공무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마음을 정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수련대회는 땅끝 마을 해남 미황사에서 개최된다.

수련대회에는 초심자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신앙체험, 사찰문화체험 등을 더해 한단계 도약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동구청불자회는 특히 동구지역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대해 시민에게 회향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공무원불자들의 역할임을 다짐했다.

'1인 1포교' '시민에게 회향'하는 불자회를 위한 회원들의 큰 활동을 기대해 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가 화두다

심향사, 이주민아동 템플스테이 및 음악회 개최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3월 13~14일 심향사 경내에서 이주민 아동 문화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플루트 앙상블 공연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 심향사와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 · 심향사 주지)가 3월 13~14일 심향사 경내에서 '이주민아동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30여 다문화가족 어린이가 참여한 행사에는 등 만들기, 종명상, 음악회에 이어 전래놀이, 다도, 개인 화분 만들기, 전통문양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원광 스님은 "심향사가 최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주민아동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과 클래식 음악을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고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은 국제결혼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화두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참여 아이들의 부모와 사찰신도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봄날의 꿈' 플루트 앙상블 음악회가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인 이수지 양(영산포 초등3학년)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참여하게 돼 즐거웠다. 특히 처음 들어보는 플루트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음악회를 후원한 무지크 바우(대표 조기홍)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에 한번씩 심향사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이해 위한 '수행' 눈길

승가원 직원들, 금산사서 템플스테이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실무자들이 3월 18~19일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실무자들의 불교 이해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태원)은 3월 18~19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제1회 승가원 직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70여 승가원 직원들은 사찰예절 습의와 예불, 발우공양, 108배 등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문화재 해설, 사찰순례, 스님과의 대화, 염주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도반부처께 절하기, 주지스님 법문, 참선,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승가원은 "승가원 직원들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더욱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워 장애가족, 후원가족, 이용자 모든 분들께 더 큰 행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의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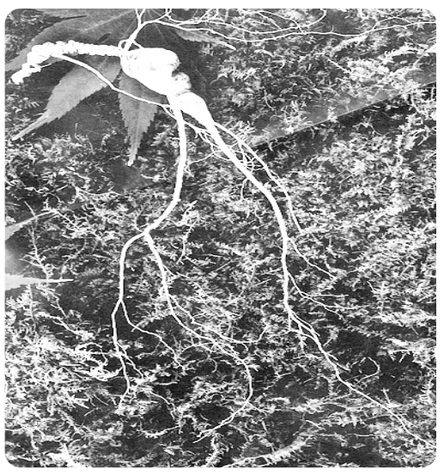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4-1호
전화 010-7344-1881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철감선사 부도의 지붕돌 추녀는 목조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왔으며 정교한 조각이 일품이다.

하늘사람의 솜씨인가 정교함과 해학 통해 걸림없음 희구

30 부도의 '명품' 간직한 쌍봉사

봄비 내리는 날, 화순 쌍봉사 대웅전 앞에 섭니다. 염결한 몸매를 자랑하는 3층 목탑은 다른 절에서 느끼기 힘든 감동을 줍니다. 훤칠한 장부처럼 서서 만중생의 귀의를 받아들이는 그 위엄이 봄비 속에서 더욱 중량감을 드러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과 아난존자에게 삼배를 올리고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릅니다.

쌍봉사 철감도윤(澈鑒道允 798~868)선사 부도(국보 제57호)를 만나러 가는 길은 고운 흙길입니다. 오른쪽은 무성한 대숲이고 왼쪽에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차나무가 뾰족한 새순을 내밀고 있습니다. 차와 대나무를 좌우에 거느린 길을 따라 100m 쯤 오른 곳에 철감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도를 꼽으라면 누구나 이 철감 선사의 부도를 꼽습니다. 비록 도굴의 피해를 입어 상륜부가 없고 옥개석의 일부분과 하대석의 일부가 파손 되었지만 그 안정감 있는 매무새와 화려한 조각은 보는 사람을 환희롭게 합니다. 석조부도를 감상하는 눈 맛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부도라고 평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철감 선사의 부도는 지리산 연곡사 동부도와 함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부도의 아랫부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대석은 팔각의 지대석위에 두 단으로 된 팔각형의 굄대를 마련하고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부도를 받치는 지지대를 매우 안정감 있게 설치한 것입니다. 각이 없이 둥글게 조성된 하대석을 설치하며 지표와의 거리를 리듬감 있게 배려한 것이 탁월하게만 느껴집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며 꿈틀거리는데, 그 조각 솜씨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대석의 윗 단은 완만하게 팔각을 취하고 있는데 안상 속에는 여러 가지 몸짓을 가진 8마리의 사자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자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거나 개처럼 엎드려 있기도 한데, 그 중 한 마리는 자신의 뒷다리를 물고 있어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조각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익살스런 형상을 빚었을까요?

"철감 선사가 입적할 당시는 다소 혼란스런 시절이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큰 울림으로 법을 폈던 철감 선사의 부도에 이 같은 해학적인 형상이 묘사된 것은 당대 사람들이 희구하는 태평성대 혹은 깨달은 사람의 걸림 없는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쌍봉사 건너편 이불재(耳佛齋)에 살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철감 선사는 장보고 선단과 막역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이 부도 역시 그와 연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는 선사의 입적에 대해 시호를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절차는 처리 할 수 있었겠지만 기울어 가는 국운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쌍봉사에 이토록 아름다운 부도를 조성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토호 세력과 장보고 선단의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작의 탄생이 가능했을 것이란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팔각의 중대석은 하대석 윗면에 홈을 파고 끼워 넣었습니다. 기둥에는 연잎을 조각하여 모서리가 주는 예리함을 무디게 처리하고 안상에는 다시 다양한 형상의 가릉빈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솜씨와 정성의 조화를 넘어선 깊은 곳에서 얼비치는 무언의 메시지가 부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니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볼 수 없습니다.

연화대와 안상 속의 가릉빈가가 더욱 현란하게 형상화 된 상대석은 둥근 몸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대석의 원형에서 중대석의 팔각을 거쳐 다시 원형으로 돌아 와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의 변화로도 무언가 큰 설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장의 연꽃잎은 중간에 다시 화려한 꽃무늬가 치장되어 있으니 이를 두고 금상첨화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은 상대석의 윗 단에 한참 머물게 됩니다. 안상 속에 새겨진 가릉빈가들의 형상은 기기묘묘 그 자체입니다. 한 곳에는 살풀이춤을 추는 모습이고 또 한 곳에서는 장구를 치는 모습입니다. 장구의 경우 <악학궤범>에 "고려시대 송나라로부터 들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의 악기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 부도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시대의 범종에서도 장구가 등장하니 <악학궤범>의 기사에 다소 오류가 있거나 모양은 비슷하나 다른 악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팔각의 몸돌은 배흘림기둥을 세웠고 기둥 윗부분은 목조건축의 짜임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석조부도는 목조건축의 구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뒤로 문비를 둔 탑신석에는 옷깃하나까지 세심하게 표현된 사천왕상과 비천상이 면마다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철감 선사의 사리는 그 안쪽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사리를 훔치려는 사람이 이 부분을 노리고 탑을 쓰러뜨려 탑은 오래 흩어져 있었고 1957년에 다시 짜 맞춘 것이 지금의 모양입니다.

이제 시선은 상륜부를 잃어버린 옥개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방 감탄사를 토하게 됩니다. 세월의 보증서 같은 이끼를 덮고 있는 지붕돌의 낙수면을 따라 봄비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빗물은 연잎이 정교하게 새겨진 수막새 끝단에서 영롱한 보석이 되는 듯합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처마 밑을 보면, 연목과 부연 등 서까래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목조건축의 축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천상과 향로와 꽃무늬들이 정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더듬으며 영원의 집으로 들어가는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부도는 사람의 솜씨가 아닐 것만 같습니다.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 밤사이에 덩그렇게 조성해 두고 올라갔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석공에게 자신도 모르게 솜씨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철감 선사 부도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국내 부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철감선사 부도.


앞으로 나아갈 듯한 자세를 취한 귀부.

철감선사 부도 균형미와 정교함 '국내 최고의 걸작'
앞으로 나아갈 듯 오른발 든 귀부는 역동성 보여줘

이제 눈을 돌려 부도탑비를 더듬습니다. 아깝게도 몸돌을 잃어버린 채 귀부와 이수가 한 몸을 이루어 봄비에 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비를 맞고 눈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근처 어디를 파보면 몸돌의 조각이라도 나올 것 같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등에는 선명한 귀갑문을 짊어지고 머리를 치켜 든 귀부는 금방이라도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듯합니다. 거북의 몸 쪽에서 오른쪽 발은 위로 쳐들었고 왼발은 발톱으로 땅을 파듯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은 잠시 휴식을 거두고 앞으로 걸어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철감 선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뻗어 나갔을 것입니다. 이수의 화려한 구름 문양과 그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두 마리의 용,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세 개의 귀꽃이 성성한 기상의 선사를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귀꽃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철감 선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의 개산조입니다. 그의 제자가 징효절중(澄曉折中)이며 그에 의해 사자산문이 흥성하게 됐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서인 <선문조사예참의문(禪門祖師禮懺儀文)>에 사자산문의 개산조가 철감 도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감 선사의 생애는 비문이 유실되어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지만 <조당집> 권17 '쌍봉화상' 편에 대강이 드러나 있습니다. 쌍봉화상은 철감 선사가 말년에 얻은 호입니다.

철감 선사는 18세에 출가하여 황해도 귀신사에서 <화엄경>을 공부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를 참방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남전보원은 마조도일의 제자이고 도일은 남악회양의 제자입니다. 다시 남악회양은 중국 선종의 우뚝한 봉우리 6조 혜능의 제자입니다. 철감선사는 혜능의 조계선맥을 정통으로 이었다는 얘기이고 '끽다거'로 유명한 조주와 같은 항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맥은 흥녕선원(영월 법흥사)에 있는 징효절중 선사의 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남전보원이 철감 선사에게 법을 전하며 "중국의 법이 신라로 간다"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중국과 한국의 불교를 비교해 보면 그 탄식은 오늘에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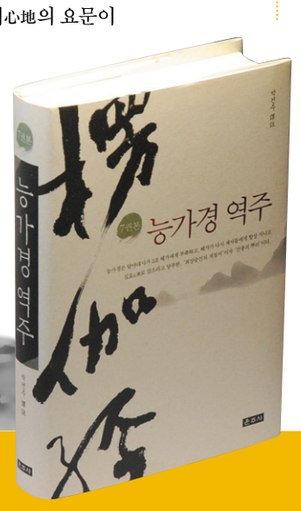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_달마대사가 혜가에게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_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 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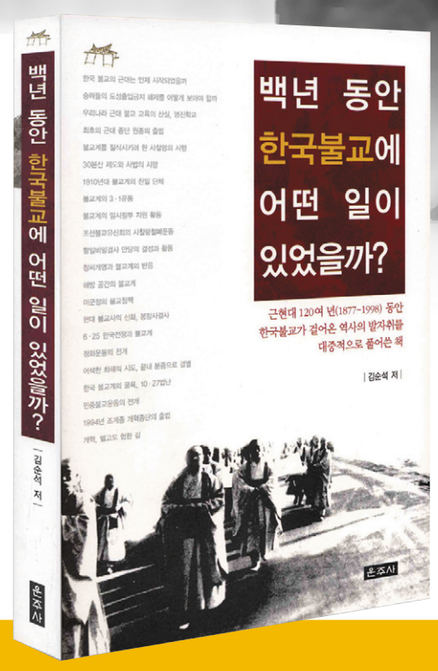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석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8>

무엇이 가장 견고한 것인가?

조주 스님이 법당에서 설법했다. "형제들이여, 설법을 들으려고 오랫동안 서 있을 필요 없다. 일이 있으면 상량(商量:헤아림)하겠지만, 일이 없으면 선당에서 좌선하면서 법을 궁리하는 것이 좋다. 노승이 행각시절에는 하루 두 끼 식사를 위한 자질구레한 용심을 제외하고는 따로 용심처가 없었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출가와는 거리가 멀다."

師上堂云 兄弟莫久立 有事商量 無事向依鉢下座窮理好 老僧行脚時 除二時齋粥 是雜用心力處餘外更無別用心處 若不如此 出家大遠在

수행자도 일이 있을 때는 생각을 굴려야 할 때가 있다. 수행승도 사람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때 생각의 굴림은 일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이다. 또한 밥을 먹기 위해 자질구레한 마음을 쓰는 것도 부득이하다. 그 외에는 수행자라면 조용히 좌선하면서 화두를 궁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연히 하루 종일 잡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수행자라 하겠는가.

무심히 살아가는 수행은 출가자나 재가자의 기본 수행이라는 조주 스님의 설법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을 보고 당해도 무심으로 넘어가는 수행은 노년이 돼도 계속 돼야 한다.

한 스님이 물었다.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고금(古今)의 기준이야."

問 如何是心地法門 師云 古今榜樣

심지법문이란 마음에 대한 법문이다. 조주 스님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고금의 기준이 된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세상사 복잡하고 많지만, 모든 것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있다. 인간사에서 마음을 빼놓고 도대체 무엇이 더 의미가 있단 말인가. 종국에는 돈도 명예도 별 의미가 없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만 편안하다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얼마 전에 지인이 위암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52세의 여자였다. 문상객 틈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평소 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고인이 그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으며 모아 이제 겨우 시내에 상가 하나를 장만했고, 가게 세를 받기만 해도 퇴직한 남편과 노년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위치에 왔는데, 그만 죽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평소 구두쇠에 변덕이 있고 잔소리도 많고 애정 표현도 없어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말도 들렸다.

이후 남편이 찾아와 49재 경비를 결정했다. 남편은 최하위 금액으로 고인의 49재를 지내기로 했다. 고인의 막역한 친구가 와서 울먹이면서 말하길 "비록 화장이라 하지만 수의도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더니 고인을 위한 천도재 경비도 그렇게 싸게 했다"면서 못내 서운해 했다. 이에 남편은 "살아있을 때 여행가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라면서 영정 앞에서 울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49재 경비는 최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쁘고 힘들어도 적재적시에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 마디쯤은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평소에 "여보 사랑해" "힘들지? 오늘 맛있는 것 사줄 테니 나와요" "작지만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야" 라는 식의 애정이 담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 담긴 선물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무심은 출가자나 재가자의 기본 수행

마음은 비어있기에 무너질 것이 없다

화두에 몸 · 마음 바치면 반드시 뜻 캐내

한 스님이 물었다.
"만물 중에 무엇이 가장 견고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쳐다보고 욕을 한다면 네가 입이 닳도록 마구 퍼부어도 좋고, 쳐다보고 침을 뱉는다면 네가 차라리 침보다 더한 찬물을 퍼부어도 좋아."

問 萬物中下物最堅 師云 相罵饒汝接嘴 相唾饒汝潑水

무엇이 가장 견고한 것인가? 조주 스님은 '마음'만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마음은 본래 비어서 형체가 없다. 따라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 아무리 심한 모욕을 받아도 무심한 것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찬물을 끼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이 마음의 본질이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허상을 잡는 것이다. 스스로 마음이 다쳤다는 생각을 일으켜 세우면 가상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져서 상처를 받는다. 결국 자기의 한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마음이 원래 형체가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희한하게도 일체 고뇌는 사라진다.

한 스님이 물었다.
"새벽이나 밤이나 쉬지 않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승려 중에 두 번 세금을 바치는 백성 같은 사람은 없다."

問 曉夜不停時如何 師云 僧中無與麼兩稅百姓

재가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와 같은 세금까지 바치면서 살아간다. 반면에 승려는 대궐 같은 사원에 살면서 일하지 않아도 밥 주고 옷도 주고 재워준다. 게다가 승려는 세금마저 감면 받는다. 때문에 승려가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1년에 두 번 세금을 바치는 백성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처음 출가해 스님이 되면 열심히 수도해 도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행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입선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국은(國恩)과 시은(施恩)을 다 갚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 갚는 일은 오로지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에게 불법을 제대로 전달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요원하지도 않다. 다만 일구월심 불퇴전(日久月深不退轉)의 신심으로 화두 하나에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다면 반드시 그 뜻을 캘 날이 오게 돼있다.

수행자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못하면 도를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평생 갚지 못할 시은만 가득 짊어진 채 비참한 미래과보만 부르게 된다.

출가를 했으면 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탐구 ·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가 이 절 저 절 떠돌아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탐닉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지내면서 뱃속에 기름진 공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만 허비한다면 머지않아 저승사자를 만날 때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루고 말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3

나의 마음자리에 절을 하라

#불상을 조성하는 법

또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도를 구할 때, 말하자면 각행(覺行 :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 수행)을 닦을 때에 여래의 참되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지 어찌 법을 금동(金銅)으로 주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바라는 자는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工匠)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모양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어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절로 진용(眞容)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허물어지는 유위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진리의 미묘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眞容)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는가.



동성 스님 作

[원문]

又鑄寫形像者 卽一切衆生求佛道也 所謂修諸覺行 假像如來眞容妙相 豈道鑄金銅之所作也 是故求解脫者 以身爲爐 以法爲火 以智慧爲工匠 三聚淨戒 六波羅密 以爲模樣 鎔鍊身中眞如佛性 遍入一切戒律摸中 如敎奉行 一無缺漏 自然成就眞容之相 所謂 究竟常住微妙法身 非是有爲敗壞之法 若人求道 不解鑄寫眞容 憑何輒言成功德也.

[해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인과가 따르게 됩니다. 불상을 조성하고 탱화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 복이 됩니다. 보시를 행하는데 대상을 두고 행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행한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부처님하면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000불을 생각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길,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을 지나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을 지나지 못하고, 쇠로 만든 불상도 용광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상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 우리 마음을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각행(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 수행)을 닦는다고 달마스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은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여러분 가족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정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정의를 내려 줬다면 어렵지 않은데 부처님 용어도 많고, 보살님 명호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이나 보살님 이름은 모두 방편으로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놓았잖습니까? 이렇게 불러도 대답하고 저렇게 불러도 대답하지만 대답하는 그 놈은 이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라는 당체도 모양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 진여, 진공, 선등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탱화를 모시는 일등은 본래 부처님 모습을 형상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불상을 상대로 절을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의 부처님 자리, 참 나의 마음자리를 상대로 절을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 한다고 했을 때 돌아갈 귀자를 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본래 부처님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법이나 부처님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뜻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주 근본 실상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된 그 자리를 부처님 또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 귀의 한다고 했을 때도 하나의 법에 돌아가서 그 법에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 한다고 했을 때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님들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 한다는 말은 하나의 법을 행하고 본래 청정한 수행자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정에서 정진 하실 때 염불이나 진언을 외울 때 화두를 들 때도 염불하는 그 놈이 우주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고 설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에너지를 파동으로 보고 있지만 파동 하는 생명체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본래 갖고 있는 자리를 깨달으면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니 우리가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불자님들이 절을 하실 때도 하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할 때 청정한 수행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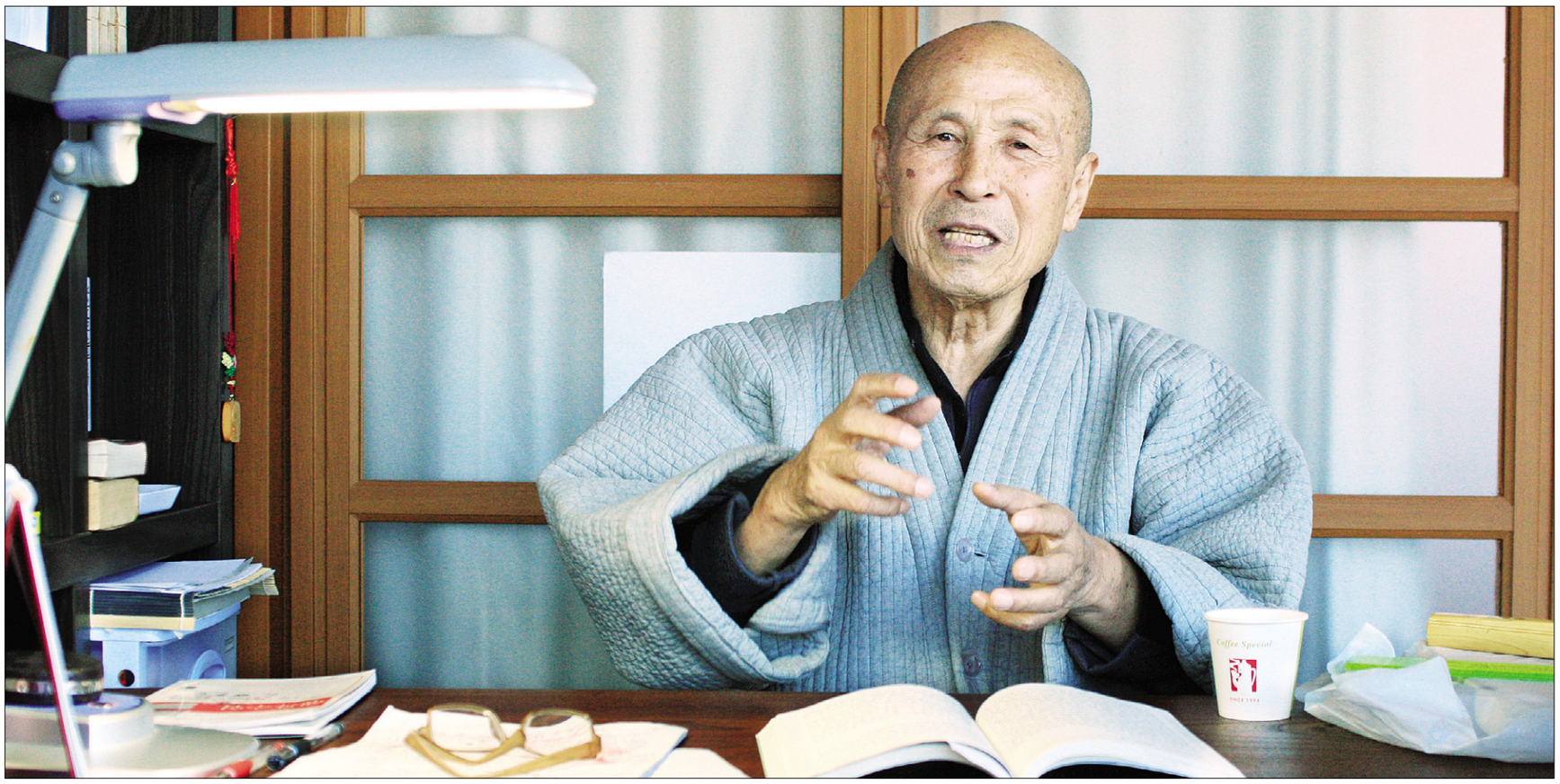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성원 스님은 ...
1958년 불국사 석굴암으로 출가하여 다음해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의 문하로 입실했다. 1961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은 뒤 30여 년 동안 각종 종무소임을 맡았다. 소임을 맡은 가운데 〈금강경〉 10년 독송의 발원을 성취했고 일종식과 장좌불와의 관음100일기도 성취, 1000일 간의 〈반야심경〉 사경과 〈금강경〉 〈법화경〉 사경 등을 원만 회향 했다. 1988년 이후 제방 선원과 토굴 등지에서 수행에 전념해 오고 있다.

산청 안적사 주석
성원 스님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수 있나?

'능엄경'의 수행법 체계적 정리 위해 '집필삼매'

관습화 된 수행풍토 혁신할 전문 수도장 필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시절은 이미 3월 중순이건만 '폭설'이 산야를 뒤덮었고 길도 끊어버렸다. 부득이 선지식을 뵙기로 한 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 늦게 달려갔다. 삼각산은 하얀 눈을 덮고 있었지만 지리산은 그렇지 않았다. 더러 응달 계곡에 잔설이 흩날리고 있을 뿐 웅혼한 산맥은 봄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은 나라 안에서 소문난 매화나무가 많은 곳이다. 남명 조식 선생의 기개가 서린 남명매와 하즙 선생의 원정매, 통정공 회백과 회중 형제의 손길을 6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정당매가 대표적이다. 산청에 접어드니 길가에 서 있는 매화나무들은 이미 실눈을 뜬 몽우리를 보여주었다. 향기도 코끝을 건드리는 듯했다.

선지식은 매화다. 찬 공기를 안으로 들이마시고 온갖 세파를 속살로 섭수시키며 우주의 진리를 응결한 선지식은 이른 봄의 매화처럼 은은하고 감미로운 법향을 세상에 내뿜기 때문이다. 청결한 코를 가진 사람은 그 법향에 감읍하고 삶의 지침을 진리의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선지식의 처소를 찾아갔다.

각암성원(覺庵性元 · 83) 스님은 산비탈 감나무 과수원 언저리에 새로 지은 절집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다. 집필삼매에 빠진 스님의 귀한 시간을 침범했다.

"3년 전에 책이라고는 처음으로 만들어 본 〈수행, 날개를 달다〉(현대불교)에서 다 못한 말들이 있고 보완해야 할 것도 있어서 새로 원고를 다듬고 있어요."

〈수행 날개를 달다〉는 〈능엄경〉에 바탕한 수행법을 안내하는 책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원 스님은 이 책의 편집후기에서 "오늘 내가 한사코 이 글을 남기고자 함은 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납자들을 위함이고, 후일에 다시 이 사바에 돌아와서 이 수행요서를 젊어서 빨리 접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음 생의 공부를 위해 금생에 한 권의 책을 묶었다는 토로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여러 인터넷 카페에 게시돼 있다.

–어떤 내용을 보완하시는 겁니까?

〈능엄경〉을 반야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 많아 경의 근본을 편협하게 해버린 것이 안타까워요. 〈달마보전〉과 소능 선사의 〈진수어록〉 등을 낱낱이 참고해 '능엄선'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잘해 도를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체가 공(空)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모르고 공으로 이해해 버리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따져보고 명확한 길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깨쳐 부처를 이뤘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옛 스승들의 말씀을 들어 증거를 해야지요. 이러한 가르침이 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할 일입니다.

–수행의 궁극이 깨달음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수행에 대한 방법론과 정신자세 등은 사람마다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하다는 이미 내려진 '결론'에 미리 도취되기보다 어떻게 수행하여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화두선이 보여준 모순들이 다 이런데서 온 것입니다. 반야의 강성함에 얽매여 각각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종지를 뭉개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이라고 말하는 진성(眞性,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몸과 진성이 본래는 둘이 아니지만, 중생은 업식과 습기로 인해 진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정이 되어 열 달 동안 태(胎) 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그 정수리가 말랑말랑 합니다. 자세히 보면 계속 달싹달싹 하거든요. 그리 우주의 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성한 기운 즉 진성이 영입되는 것이 길지 않고 자라면서 머리가 굳어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막혀버리거든요. 〈능엄경〉 제7권에 나오는 대력벽우가 바로 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오는 진리의 상징인 것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경에 나오는 대력벽우의 똥이 바로 정수리를 통해 들어온 진리가 몸으로 들어와 뱃속에 우글우글 떨어지고 온 몸을 뚫고 것이 거든요.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궁자의 비유'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결별한 아들이 50년 만에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들은 아버지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맞아들이지만 아들은 놀라 도망가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차츰차츰 아들이 가까이 오게 하는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진성을 영입하는 것도 이 비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성을 받아들여 우리의 습기(習氣)를 하나하나 지워내는 것, 그 차츰차츰의 과정이 수행인데 거기에 어긋남이 있으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수행은 몸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도나도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몸을 통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유식학에서 7식과 8식 등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일체화를 부정하고 마음만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정확한 수행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능엄경〉의 수행법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하나 된 자리 얻어야



–〈능엄경〉은 어려운 경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풀이의 오류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공부로 인식된 것이지요. 이 경전을 줄여서 '수능엄'이라 하잖아요. '수능(首楞)'이란 일체를 다 성취함이고 '엄(嚴)'이란 견고함이니 일체를 성취하고도 견고함을 얻어야 수능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겠지만 실제 경전을 공부해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수행법과 그 대의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공부를 하는데 있어, 그 성취의 근본이 잡히려면 13년이 걸립니다. 처음 입태(入胎 아기를 배는 것)의 과정이 열 달이나 1년이라 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행의 기초다지기가 되어 단전에 핵이 형성되는 정도가 됩니다. 다음 3년쯤은 유포(乳抱) 즉 젖을 먹여 기르는 단계인데 그 핵이 단전에서 명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문을 열고 로케트가 발사될 수 있는 '발사대'를 형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9년쯤 정진이 필요한데 달마 대사의 경우를 보면 '면벽'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로케트가 찰라찰라 발사돼 우주 삼라만상을 두루 보고 느끼고 관찰해 저장합니다. 우주적 진리가 하나의 자리로 응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리, 바로 마음이라는 자리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심으로 일으키고 저장해 둔 업식들을 지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워지고 지워져서 고요하고 텅 빈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성의 자리이며 내 몸과 진성이 둘이 아니게 부합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수행을 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능엄경〉 수행은 바로 이런 수행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다들 쓰는데, 그 도리를 나도 알고 싶어서 컴퓨터 공부하는 책을 사다 봤습니다. 입력하고 지우는 과정이 꼭 들어맞는 것이 흥미로워요.

–무엇보다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의 수행풍토는 형식적이고 관습화된 경향이 많아요. 내 생각으로는, 종단에서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봐요. 평생 틀고 앉아 있어도 결론을 못 내는 수행이라면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승단과 불교계는 수행과 사회화에 대한 관계를 매우 막연히 설정하고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복지사업이나 구호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불교의 사회화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달리 봐야 하거든요. 수행의 자리는 언제나 서슬 푸른 수행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일은 또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불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홍수가 나서 집과 짐승과 사람이 마구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에 나와 그걸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헤엄을 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사람 다 물귀신에게 잡혀 가요. 헤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없어요. 수행이 철저해야 하는 것, 수행을 통해 궁극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언제라도 물에 뛰어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홍수 속으로 뛰어들면 그 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나요. 오늘날 수행의 현장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이야기이고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종단의 선거제도가 승가규범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 노력과 불교본연의 수행전통 계승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해 전부터 동서양과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열기가 대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행의 방법론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지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와중에 문제제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혜종고 선사 이후로 화두선에 길들여진 집안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떨치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조계종 종정을 오래 지내신 성철 스님은 평생 화두선을 했다는데 그 문도들은 3000배와 능엄신주 기도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선사도 생사가 둘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여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하나로 계합하는지 체험하려고 물동이 이고 지나가는 처녀에게 입맞춤을 한 것 아닙니까? 일본의 경우 〈능엄경〉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위경(僞經)이라며 배제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능엄경〉을 진경으로 인정하면 일본의 불교가 다 비불교가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도 〈능엄경〉을 위경으로 분류한 것을 보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동안거와 하안거가 결제되면, 제방의 선원에서는 공부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래 들어 그야말로 활활발발한 오도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나요? 관습화되고 제도화 규율화된 수행풍토에 젖어서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 전에 비해 얼굴의 검버섯이 사라지고 허리가 오히려 더 꼿꼿해진 성원 스님의 모습을 보며 '비결'이 있으시냐고 여쭈었다. 스님은 빙긋이 웃을 뿐 답이 없다. '대력벽우의 소식을 네가 알겠느냐'는 것 같아 뜨끔했다. 스님은 산수화가 그려진 커다란 화선지를 하나 내 놓으셨다. 복사된 그림 상단에 단정한 글씨로 시 한편이 적혀 있었다. 성원 스님의 자작시였다.

세월이여 흘러가다오. 나는 여기 산과 들에서 살아가는 운수객. 청송(靑松)으로 해를 가리고 청계수 흐르는 곳에 구름 잡아 천막치고 달님 불러 고운 밤을 밝히나니 표주박에 옥수 떠 마시고 팔베개 누운 곳에 초향(草香)이 잠겨드는 향연(香煙)속에 잠이 들지요. 산중의 살림살이 이와 같은데 임금님의 손짓도 반갑지 않고 염왕(閻王)도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삶인데 내 어찌 세상일을 탐하랴. 이곳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삶도 죽음도 비켜 가는 곳 달이 물 속을 걸어가듯 강물이 달을 든 듯 나는 언제나 안녕 안녕.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나니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번쩍 눈을 뜨겠지.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6. 역사학자 조좌호 선생

성균관대 총장 지낸 인의예지 박힌 선지식… 일불제자로 살아

1950~1960년대 동국대에서는 동양철학과 동양사상의 두 거목이 있었다. 김용배 교수와 조좌호 선생이다.

당시 김용배 교수는 강의 때마다 하얀 수염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민권운동가인 함석헌 선생과 같은 인상을 주었고, 조좌호 선생은 붉은 테 안경에 버버리코트를 입고 다녀 멋스러운 신사의 품모를 지녔다.

조좌호 선생은 191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1991년 입적 때까지 학술 진흥에 매진해 온 사학계의 거목이었다.

조좌호 선생은 1931년 향리의 남면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했다. 1933년 대구사범학교 재학시절에 항일민족운동서클에 가담한 조좌호 선생은 일본경찰에게 체포돼 그해 12월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된다.

조좌호 선생은 항일운동서클 사건으로 국내대학 진학이 어렵게 되자 일본 유학을 결심, 1941년 동경제국대학교 문학부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동아연구소(東亞硏究所)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광복을 맞아 귀국, 1945년 연희전문학교 조교수를 시작으로 1947년 부산대, 1952년 동아대를 거쳐 1953~1966년 동국대, 1966~1982년 정년퇴임 시까지 성균관대에서 교수로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조좌호 선생은 불교사학 연구에 있어서도 스님 · 절에 연관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불교를 그대로 보여줬다.

조좌호 선생은 "불교도 자기 고집만 가지고는 통일 불교를 이루지 못한다. 불교를 한다고 해서 불교를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면 결국 불교는 쇠퇴한다. 불교학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바르게 평가하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상은 불교학교 교수였던 조 선생을 장차 유교학교인 성균관대 총장을 만들어 서양에 유교를 수출할 수 있게 했다.

동국대에서 조좌호 선생은 독특한 강의로 유명했다.

당시 조좌호 선생이 강의실에 들어서면 500쪽이 넘는 동양사 교재는 펼치지도 않고 3황5제부터 하 · 은 · 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전한 · 후한, 위 · 촉 · 오의 도면을 그려 놓고 물 흘러가듯 중국사를 이야기했다.



"어느 나라도 해와 달, 산과 물 없이 문명이 이뤄지는 법은 없습니다. 중국 황하문명은 5000년 전부터 이 일대에 사람들이 모여 들어 신석기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조좌호 선생의 불교에 대한 강연도 마찬가지였다. 조 선생은 흐름에 따른 강연 후 끝머리에 자연스러운 의문과 과제가 생기도록 유도했다.

"중국불교는 한나라 명제 때 들어와 도교와 상쟁 또는 상생하며 크게 일어섰습니다. 수 · 당에 이르러 5호 16국 시대를 맞아 불교는 사상의 근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중국불교 역경사를 통해 여러 종파 분열의 경위를 잘 이해하고 장차 선불교가 중국불교를 대표하게 되는 이유를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조좌호 선생은 강의실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명자 그대로 동양인의 인의예지가 몸에 꼭 박혀 있는 선지식이었다.

나는 조좌호 선생과의 인연으로 이후 인도 부파불교 분열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또 중국 5가7종과 화엄 · 천태 · 삼론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공부하게 됐다.

그와의 인연을 돌이켜 보면 조좌호 선생은 진실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종도 파도 없이, 모든 관념조차 버리고 오직 일불제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민족과 역사 앞에 그는 관념을 버린 대자유의 삶을 이어갔다. 치열한 학문에의 정진과 자유가 넘치는 조좌호 선생의 여유는 그를 성균관대 총장으로 이끌었으며 이후 사학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원동력이 됐다. 조좌호 선생은 〈동양사대관〉 등 저서를 남겼으며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 및 1982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바로잡습니다



774호(2010. 3. 10일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85편에 실린 사진은 본문에서 제시한 태고종 12대 총무원장 지암 대종사(법명 재윤 在允 · 사진)가 아닌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무원장을 역임한 이종욱 스님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 正 골 骨 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북 화폐개혁 3개월… 심각한 반발 예상

사 회 :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일 시 : 2010년 3월 16일
주 제 :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 진단
장 소 : 평화재단 강당
주 최 : 평화재단 · 좋은벗들
발 표 및 토 론 자 :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

2009년 11월 30일. 북한은 급작스럽게 화폐 교환 조치를 발표했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현재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16일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 사회 동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진정 옳은 것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포럼을 연 이유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 동향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2009년 11월 30일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는 2010년 강성대국건설을 맞기 위한 물질적 기본을 담보하자는 것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목적은 대외용일 뿐이며, 실상은 현금 수입 확충과 사회주의 경제구조로서의 복귀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북한의 경제는 개인과 국영기업들의 돈이 국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가 빈약해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생각입니다. 현재 화폐개혁 조치 후, 구 화폐 10만원은 새 화폐 1000원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조치 이후 당국이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망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종합시장 폐쇄에 돌입한 북한은 물가가 최고 10배 이상 상승하고, 쌀값이 20배, 달러가 10배, 위안화가 1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돈주들이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중국과의 무역거래도 큰 지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자,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품이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도 물가가 폭등하자, 장사마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시장의 거래는 완전 얼어 붙었습니다.

식량부족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자 중앙당은 1월 31일부터 임시 시장을 허용했습니다. 물가가 평균 2~3배 이상 폭등하고, 국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로 수입도 중단되다 보니,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서 장사로 어렵게 돈을 번 세대들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폭등하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하기조차 힘들었던 농민들은 1인당 1만 5000원의 배당금 공급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배급과 물품 공급이 중단됐고, 2010년 1월 중순에는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은 현재 "식량을 달라"며 집단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배급이 전혀 없는 상황인 북한은, 화폐개혁 조치 이후 시장이 중단되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 중에 굶어죽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당중앙경제정책검열부는 1월 초부터 26일까지 주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굶어죽기 직전에 처했다는 내용의 직보가 전국적으로 약 5660여 건, 이 중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2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춘궁기 때 농민들이 많이 죽었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농민들보다 주로 장사에 의존하던 도시 노동자들이 식량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사자도 주로 도시 노동자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 동국대 박순성 교수, 서강대 김영수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연구원이 평화재단 제37차 전문가 포럼에서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의 상황진단'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현재 북한 당국은 일부 경제지도 일꾼들의 잘못으로 인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개인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내각 총리와 박남기 경제정책부장이 인민반장 이상이 참여한 평화 내각 총회에서는 화폐개혁 조치에 관련한 사과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회혼란 책임을 인정한 이들은 "3개월만 기다려 달라. 이제 쌀이 풀린다. 좀 더 참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지방당원을 중심으로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가 준비성 있는 조치였는가, 배급이 가능한가 등을 놓고 동요하는 것으로 보여져, 북한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청중들은 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북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화폐개혁은 '~을 하기 위해서'아니라 '~을 막기 위해서'

#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북한이 전격 시행한 화폐가치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국이 시행한 조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화폐개혁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중앙당이 돈도, 쌀도 공급망을 통해 준다고 했지만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남한으로부터 기대했던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중국의 지원도 생각만큼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위신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이 어떠한 정치를 펼치고, 민심이 어떻게 변해 갈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11월 30일 시행한 화폐개혁 조치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필 12월 전인 11월 30일 이었을까요? 12월 달은 총결산을 앞둔 달입니다. 화폐개혁 조치를 꼭 해야 했다면, 3~4월 달이 더 적정한 시기였음에도 11월 30일에 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영희(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북한에서 살다가 온 저도 화폐개혁 사실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김영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왜 하필 11월 달에 화폐개혁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2년 7월 1일 화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암암리에 소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 달리 정말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의 신경제 조치라 생각됩니다. 북한 당국은 어떤 조치를 내 놓았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2년 화폐개혁 당시에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1월 30일 발생한 화폐개혁 조치는 당국이 모든 시장을 국영수매상점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장을 국영수매로 전환하면 모든 유통을 중앙당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산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국영수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현재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은 비슷하나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인민들 수중에 현금도 없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북한 당국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문석(통일교육원 교수)=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면 3번의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7년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2002년 7월 1일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조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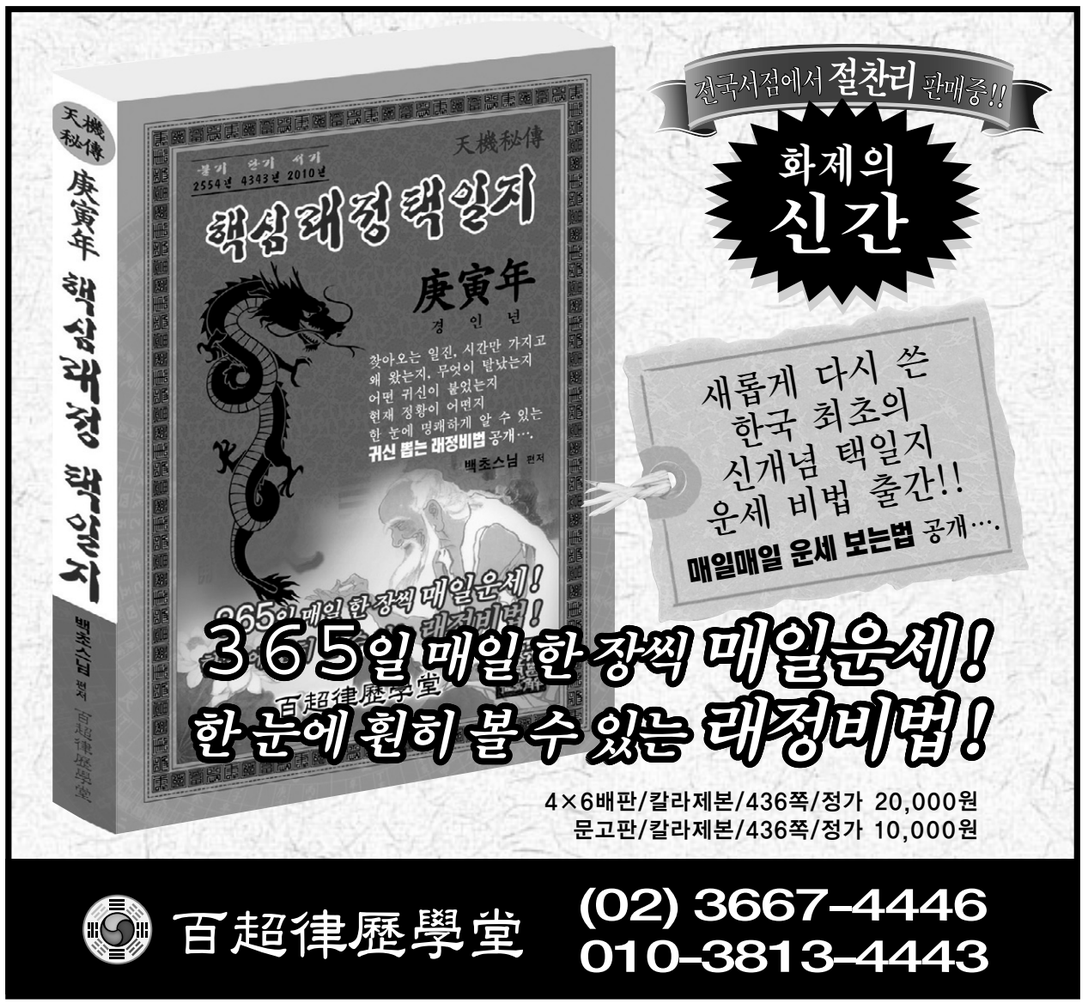
이런 화폐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정적인 위기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세기 국가에서 제정상태가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재정위기를 갖고 있으면, 체제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아마도 북한이 "~을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에 비해 화폐가 많기 때문에 화폐를 증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가 없어져야 하는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002년 화폐개혁 조치를 새로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배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억압하면서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아마도 2002년 화폐 교환 조치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쌀 가격이 1400원이었던 것이 14만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화폐개혁입니다. 국가가 재정위기만 탈출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공급위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의 결과를 '양털깍기'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적절하게 돈줄이 뭉쳐져 있을 때가 양털이 적당히 자란 시기라고 본다면, 정부는 이 양털이 적당히 자랐을 때 깎아 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기로 봤을 때, 이 양털은 5~7년을 주기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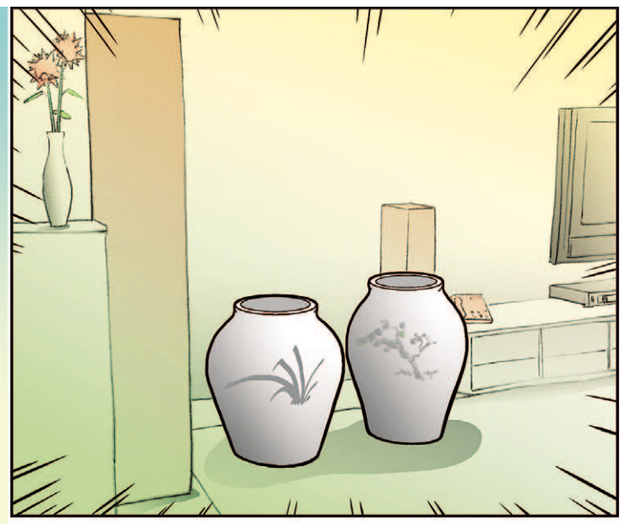


요절복통 여래네 집

#4. 여래와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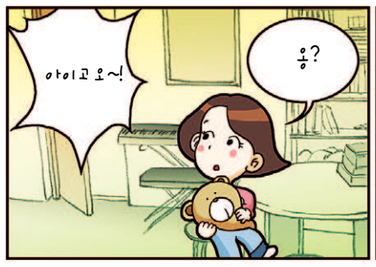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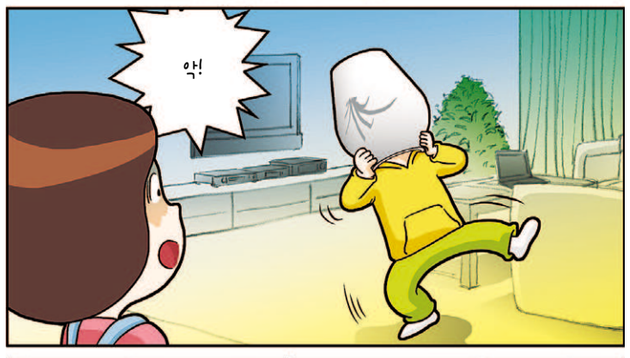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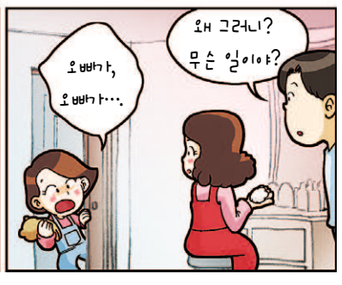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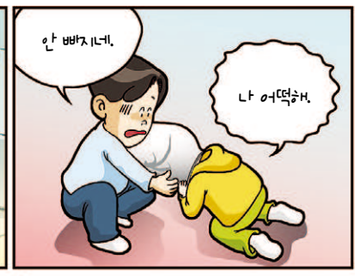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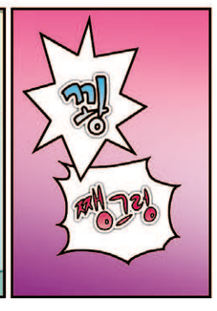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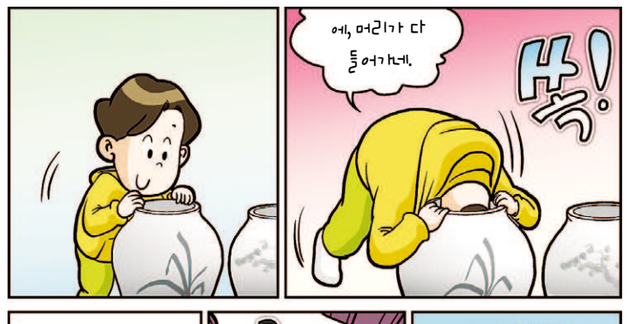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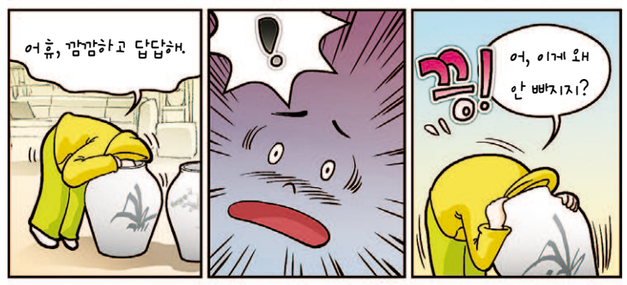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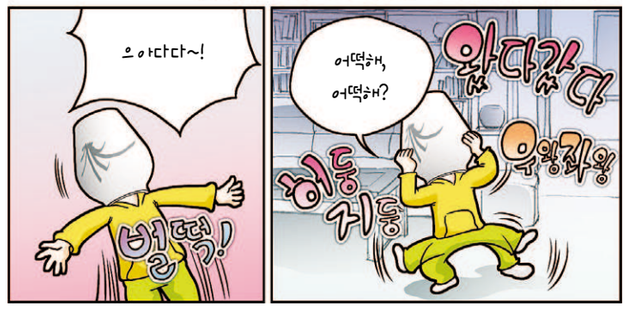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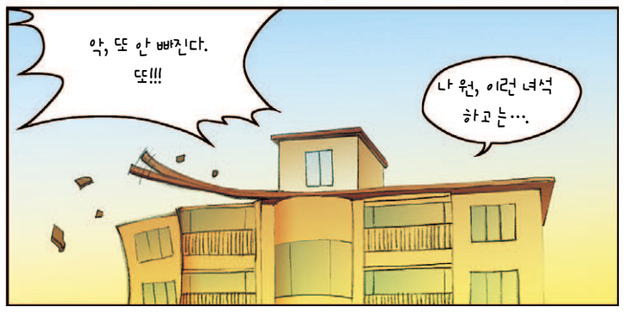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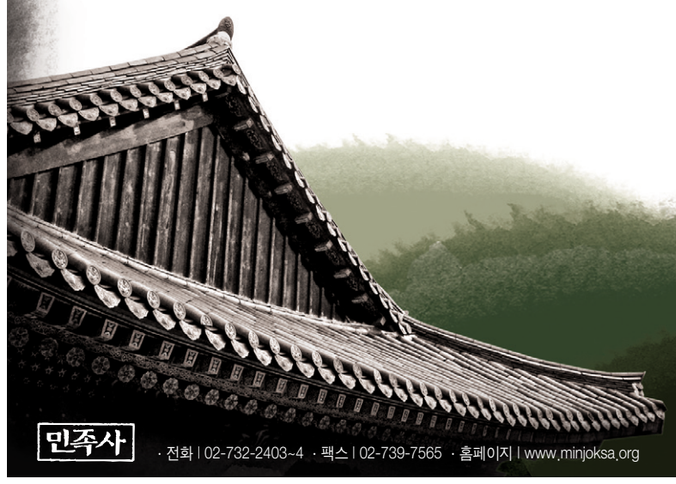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어리석은 자는 설사, 지혜로운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법구경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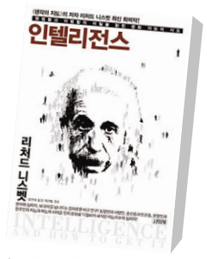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인텔리전스



누구나 IQ 테스트를 해봤을 것이다. 지능지수에 대해 얘기한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IQ(intelligence quotient)는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는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인가, 환경 요인 때문인가? IQ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인텔리전스>가 출간됐다. <생각의 지도>로 국내에도 알려진 미국 미시간주립대 심리학과 교수 리처드 니스벳(Richard E. Nisbett)의 최신작이다.

IQ는 프랑스의 비네가 학령기 아동의 정신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여기서 지능은 정신연령을 신체연령으로 나눈 값이다. 10세 아동이 12세 아동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이 아동의 IQ는 120이다. 만약 10세 아동이 8세 아동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했다면 이 아동의 IQ는 80이다.

IQ 유전 아닌 환경… 노력하면 높아져

현대의 IQ 검사에서는 해당 연령의 평균인 분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수행이 소속 연령집단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다면 이 사람의 IQ는 115가 된다. 본래 IQ 검사는 학업 성취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얼마 후 사람들이 지능이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람들에게 다른 이의 지능을 평가하라고 한 결과와 IQ가 비슷했던 것이다. 지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IQ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IQ 유전론에 반대한다. IQ는 유전자에 의해 형성되지만 유전 자체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IQ환경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니스벳은 IQ의 환경결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Q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지능이 대부분 유전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아직도 일부 과학자는 적어도 성인 IQ의 75~85%가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아동이 자라 성인이 되면, 같은 가정에서 공유한 환경의 효과는 아주 미미해져서 0에 가까워진다.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IQ 유전율이 훨씬 낮다고 생각한다. 환경결정론을 주장하는 편에서는 유전율을 50%로 추산한다. 유전율은 조사집단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입양아 연구사례를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중상계층 환경에서 양육하면 하류층에서 양육하는 것에 비해 IQ를 12~18점 높일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환경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리처드 니스벳은 이 책에서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를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 어린이들의 수학실력을 증거로 내놓고, 지적성취 능력에 대한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인은 지적성취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반면 서양인은 타고난 능력이나 교사의 자질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또 아시아인은 자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판을 수용하는데 익숙하지만 서양인은 불쾌하게 여긴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아시아인 가족은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인 가족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성공적으로 자녀의 학업을 돕는다고 니스벳 교수는 강조한다. 문화적 전통과 교육에 대한 열정 여부가 IQ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IQ는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평생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텔리전스|리처드 니스벳 지음|김영사 펴냄|1만5000원

진정화 / 어학공부와 독서가 취미인 40대 주부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우리 시대 학부모다. 부처님처럼 명상 수행을 통해 평화와 진리의 세계에 살아가고픈 마음이 한가지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리빙 전문 이나래 기자,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



"커피국수는 양념장 안 넣고 먹지요?"

"그렇지요, 커피국수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발에 커피를 담고 국수 올리고 오이 얹으면 끝이지요. 오이는 최대한 곱게 채 쳐요."

"스님, 이 꽃은 어떻게 꽂으신 거예요? 멋스러워요"

"꽃시장 갔다가 바닥에 이파리 하나 떨어져 있기에 주워 접시에 물 붓고 그냥 얹은 거예요."

리빙 전문기자인 이나래 기자가 28개월 동안 맛과 멋을 아는 정위 스님의 뒤를 쫓으며 배운 것을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으로 펴냈다.

관악산 자락 아담하고 현대적인 사찰 길상사에 기거해 온 정위 스님. 주변인들은 스님의 격 높은 솜씨에 감탄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던 정위 스님이 어느 날 이나래 기자를 만나 매화비빔밥 한 사발 대접했다가 미감을 들키고 말았다.

<레몬트리> <여성중앙>의 리빙 전문 담당인 이나래 기자는 "푸드스타일리스트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멋지게 차려낸 그림 같은 광경은 숱하게 봐왔고 때로는 그 센스를 우리 집에 응용해 왔다"면서 "정위 스님의 살림은 꾸밈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배려하며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멋이 묻어 난다"고 말했다.

저자가 말하는 센스, 아낌과 배려는 스님이 만들어내는 음식과 살림살이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길상사의 히트 메뉴인 '채소떡국'은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스님은 고기 국물로 떡국을 할 수 없어 마땅한 재료를 찾다가 미나리, 유부, 버섯을 넣는 등 다년 연구 끝에 고기국물로 맛을 낸 떡국보다 맛도, 몸에도 좋은 떡국을 개발했다.

'매화꽃 비빔밥'도 그 맛이 일품. 스님이 매화꽃을 흩뿌려 비벼준 비빔밥의 톡톡 터지는 매화 향기에 흠뻑 취해 저자는 밥을 남기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금새 잊었다고.

정위 스님은 생긴 대로 살려 꽂는 자연주의 꽃꽂이를 지향한다. 꽃 시장에 꽃 사러 갔다가 발에 채여 주워 오기도 하고, 그냥 두면 꺾어질 가지, 바람에 떨어진 꽃을 앞마당에서 주워다가 대강 어울릴 만한 자리에 찾아 두는 식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에코(ECO)다. 진심을 잃고 보여주기 위한 에코가 판을 치는 요즘, 저자는 스님의 일상을 구경하면서 몸에 밴 친환경 마인드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정위 스님은 물건하나 허투루 써 버리는 일이 없다. 스님의 물건들은 평균 15년은 된 것들이다. 안경은 15년, 냄비는 25년, 가방은 8년, 신발은 10년 됐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래 쓴 물건들이 모두 멀끔하다. 이런 몸에 배인 습관은 어디서 오는 건지 묻는 질문에 스님은 "생명이 있건 없건 저에게 온 것에 인격을 부여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스님이 이 빠진 꽃병도, 깨진 홈을 살려 나뭇가지를 꽂고, 낡은 십자수 옷보는 잘라서 액자를 만드는 등 정성을 들였던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음식도 마찬가지다. 스님은 찬으로 올렸다 남은 김치들은 모아뒀다가 볶아 먹거나 찌개를 끓인다. 마른 표고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 보통은 기둥을 떼어 내버리는데 스님은 기둥만 모았다가 장아찌를 만들었다. 살림의 지혜이자 환경을 대접하는 정성이다.

스님은 "길상사를 지을 때 우연히 책을 보다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구절을 가슴깊이 새겼다"고 말했다.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에는 스님이 절을 꾸미며 삼은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위 스님의 가벼운 밥상 | 정위 · 이나래 지음 | 중앙m&b 펴냄 | 1만3800원 이나은 기자

신라 왕자가 中 오백나한이 되기까지

'정중무상평전' 무상 선사의 위대한 발자취 쫓아



여동생이 칼로 얼굴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스스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는 모습에 부끄러워 출가를 결심한 무상 선사가 중국의 오백나한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은 2001년이 돼서야 알려진 사실이다.

<정중무상평전(淨衆無想評傳)>은 무상 선사(無相 · 684~762)의 위대한 자취를 저자 최석환이 10년간 발로 쫓아 복원한 책이다.

저자는 1993년 <정중무상선사>를 출간하며 무상과 숙명적 만남을 시작했다. 그 뒤 무상 선사를 화두로 그 뒤를 따르며, 2001년 8월 쓰촨성 일대를 조사했다. 저자는 특히 중국 오백나한 중 무상 선사가 455번째에 올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구에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힌다.

1200년간의 망각을 딛고 세상 밖으로 나온 무상 선사는 신라의 세 번째 왕자로 태어났다. 출가 후 당에 건너간 무상 선사는 장안에서 당 현종에 의해 선정사에 머물며 도를 닦았다. 이후 쓰촨으로 들어가 당화상 처적 선사(處寂 · 658~734)에게 엄지손가락을 태워 바침으로써 그의 밑에서 수행했다.

무상 선사는 처적 선사로부터 정중종의 법맥과 달마의 목면가사를 이어받았다. 선사는 당현종의 칙명으로 대자사를 건립해 주지가 됐고 이후 455번째 오백나한으로 모셔졌다.

그는 선차지법(禪茶之法)의 시조이고 한국선종의 첫 출기인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원조였다. 마조에게 선법을 계승해 중국 선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중무상평전>에는 이러한 무상 선사의 선철학과 사상의 정수가 담겨있다.

<불교춘추><선문화><차의 세계>의 발행인이기도 한 저자는 "잘못 쓰여진 선종의 법맥을 바로잡고 황금부처의 현몽으로 태어난 무상 선사를 오늘날에 되살려 냄으로써 아직까지도 중생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무상의 고귀한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교량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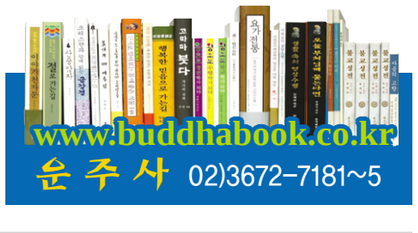
정중무산평전 | 최석한 지음 | 차의 세계 펴냄 | 2만8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2	법정 스님 숨결	변택주	큰나무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5	선객	법광	한걸음 더
6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부처되는 공부	우학	뜰
8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9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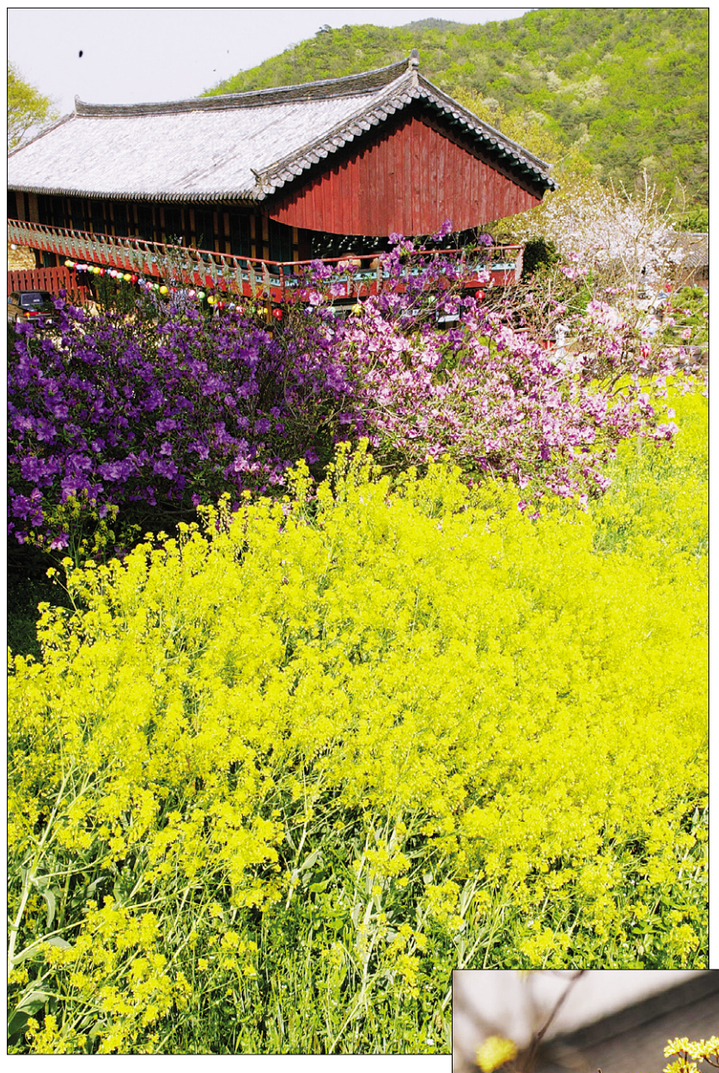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울긋불긋 꽃단청

사찰에 펼쳐진 봄꽃의 향연으로…

"Oh! Beautiful day, Oh! Beautiful life. 따뜻한 햇살 그 봄바람에 취해 볼까?"

어느 노래의 한 가사처럼,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올 것 같은 봄이 왔다. 이젠 제법 햇살도 바람도 따듯해 졌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만 하면 만사 'OK'일 것만 같다. 이런 찰나, 땅 끝에서는 일찌감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꽃들이 폭죽처럼 팡팡 터져 나와 작심한 듯,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나섰다.

봄의 꽃들이 향연하는 가운데, 이젠 정말로 어디론가 떠나야만 할 것 같다. 마음은 급해지고, 아직 발길을 정하지 못했다면 꽃들이 장엄한 사찰을 찾아가보자.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듯, 꽃과 고즈넉한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섬진강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와 매화꽃은 지금이 가장 절정이다. 구례와 광양에서 열리는 산수유와 매화꽃 축제는 끝났지만, 봄마저 가버린 것은 아니다. 아직도 봄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숨어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품고 있는 전남으로 가면 절경이 빼어난 사찰들이 많다. 그 중 화엄사는 꼭 한번 들러 봐야할 필수코스이다. 화엄사 각황전 앞에는 특이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꽃이 붉다 못해 검은빛이 돈다 해서 '흑매'라 불리는 이 나무는 화엄사를 대표하는 간판 꽃이다. 향기 또한 일품이어서, 화엄사를 들리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내달 초쯤이면, 화엄사에서는 이 흑매와 함께 벚꽃들까지 만개할 것이다.

화엄사와 더불어 구례의 3대 사찰로 꼽히는 연곡사와 천은사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인 곳들이다.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는 섬진강의 정취와 함께 산수유, 매화의 향기로움, 초록의 차밭까지 자연이 만들어 낸 다양한 오감과 색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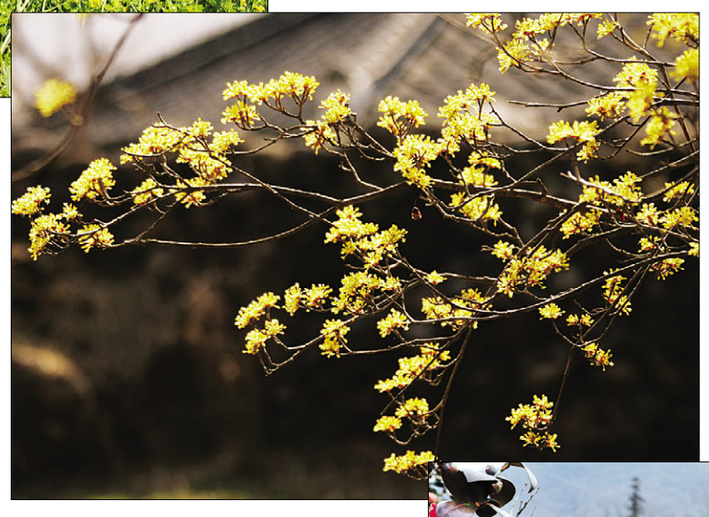
순천 선암사의 백매와 홍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자태가 아름답다. 매화의 대부분이 400~600년 정도로 오래된 고목들이라, 향과 빛깔이 매화 중에서 '일품'으로 꼽힌다. 선암사 담장을 따라 핀 매화꽃은 단청 없는 선암사를 아름답게 물들게 한다. 선운사를 덮고 있는 매화의 빛깔과 향기는 절로 감탄사를 자아낸다. '사찰에서 보는 매화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선운사 매화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는 '겨울에서 봄까지 귀한 시기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동백(冬柏)'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붉고 강렬한 빛깔이 특징인 동백은, 꽃이 가장 붉고 아름다울 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아야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한다. 떨어진 동백꽃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아련해 더욱 아름답다.

고창 선운사는 이런 동백꽃을 감상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다. 선운사에는 동백꽃이 숲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될 만큼, 500년 이상 된 동백나무들이 3000여 그루나 있다. 선운사 주변에는 동백꽃 외에도, 벚꽃과 철쭉이 연이어 피어 봄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하동 쌍계사는 봄을 가장 대표하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벚꽃은 화사한 눈꽃처럼 피었다가 한 번에 꽃비가 돼 내려,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4월 2~4일까지는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벚꽃 길은 그야 말로 장관이다. 또한 섬진강 주변부터 화개동천 25km 구간도 만개한 벚꽃으로 단장되면, 눈부실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 통도사 서운암으로 가면 100여종이 넘는 들꽃들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서운암의 마스코트인 3000개의 장독대 주변으로 피어나는 다양한 들꽃들은 산사와 어우러져 아주 특별한 장관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서운암 들꽃축제 기간에는 사진전, 시화전, 그림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위에서부터 통도사 서운암의 들꽃축제 풍경(현대불교 자료사진),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산수유꽃(구례군 제공), 선운사 경내에 붉게 피어난 동백꽃의 모습(선운사 제공)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오구, 생사 해학의 한풀이

연희단거리패, 20년 저력 쏟아부어



연희단거리패가 공연하는 '오구'의 한 장면.

이윤택 감독의 연희단거리패와 대표작품인 연극 '오구'가 1991년 독일 에센 세계연극제 이후 20년 만에 본래 고향인 가마골소극장으로 돌아왔다. 국내에서 드물게 최장기간 공연되고 있는 '오구'는 '귀신연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런 '오구'가 다시 본래 원년 멤버였던 남미정, 하용부, 배미향 등을 내세워 다시 무대에 오른다. 20년을 이어 온 연희단거리패의 오구는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 내고 특별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던 화제의 작품이다. 1997년부터 노모 역을 맡았던 강부자는 '오구'를 대중적인 작품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오구는 늙은 어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들에게 산 오굿을 해 달라하는 장면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오구 굿 중에 늙은 어미는 죽고, 무대는 초상집으로 변한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 죽은 노모의 모습은 가슴이 아프지만, 노모의 코믹스런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는 연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전통장례의식 조차 코믹하게 보여주는 오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거리감을 떨쳐버리게 한다. 이윤택 감독은 이러한 한국의 한을, 해학적으로 풀어놨다. 또한 죽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없애고, 그들의 삶을 연극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죽음을 잊고 슬픔과 고통과 공포를, 춤과 노래와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우리 내 삶이고 한국적인 낙천성"이라는 것이 이윤택 감독의 생각이다.

오구는 저승세계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생각과 형태를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저승은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죽음을 거쳐 이승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또 하나의 세상인 것이다.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도 일상에서 쉽게 만난다. 초상집에는 물론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저승사자를 위해 밥을 따로 마련해 놓는 등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이렇게 저승은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세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세계라고 연극 '오구'는 말한다.

가마골소극장의 관계자는 "오구는 말, 노래, 마임, 각 지방 사투리 등 다양한 문화가 총체적으로 구성돼 관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구도"라며 "무대 위의 연극이 아니라, 객석과 무대 구분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 배우가 관객이 되도록 공연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개방성이 그동안 오구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 '오구'는 4월 18일까지 공연된다. (051)868-5955

이은정 기자



최연의 산 이야기 <4> 북한산 3

산성엔 스님들의 땀방울이 옹이처럼 맺혔구나


능선 따라 산성을 쌓고, 드나드는 길목에 성문을 냈다. 성문은 홍예문으로 문루를 올렸다.

북한산은 군사상의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삼국시대부터 산성을 쌓은 기록이 나타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한산성은 백제 개루왕 5년(132년)에 최초로 쌓았다고 한다. 당시 말갈 등 북방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산성의 전신(前身)인 중흥동 고석성(中興洞 古石城)의 위치에 토성(土城)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에 나타난 북한산성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북한산성이 백제 초기에 백제의 북방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고구려가 이를 격퇴하기 위해 여러 번 침공하였다가 물러가곤 했다.

그러다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南下政策)으로 고구려의 손에 넘어갔고, 신라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되찾았으나 백제 성왕 말년에 신라가 다시 손에 넣었다. 이후 신라 진흥왕 16년(555년)에 신라가 한강지역 전체를 차지한 후 북한산 지역을 순행하여 비봉에 순수비를 건립하여 신라의 강역(疆域)으로 획정 지었다.

고려시대에는 북진정책이 대세를 이루어 북한산성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388년 우왕이 최영(崔瑩)장군과 함께 요(遼)나라를 치기로 비밀리 의논하고 한양의 중흥성(中興城)을 수축(修築)하였는데, 이때에 석성(石城)으로 개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이 북한산 장군봉(將軍峰) 아래 중흥동 일대이고 장군봉이란 이름은 바로 최영 장군이 주둔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중흥성 또는 중흥산성으로 불리게 된 연원은 백제 근초고왕 26년(371년)경에 북진정책(北進政策)의 일환으로 수도를 한강 이북으로 옮기고 북한산성을 전략적 거점으로 백제 중흥을 꾀하였기에 그렇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선조(宣祖) 때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仁祖) 때에 북한산성에 대한 축성(築城)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매번 신하들의 반대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숙종(肅宗) 37년에 마침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4월 3일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9일에 완성하여 거의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대한 모든 기록은 <북한지(北漢誌)>에 실려 있다. 이 책은 조선 숙종 · 영조 때의 고승 성능(聖能) 스님이 숙종 37년(1711년)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되어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관한 주요 임무를 띠고 약 30년간 중흥사에 머물며 그 여가에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의 역사지리를 집필하였다.

책의 구성은 앞쪽에 북한산의 지세와 북한산성의 주요 시설물을 표시한 3장의 북한도(北漢圖)를 붙였고, 뒤이어 북한산성과 관계된 내용을 도리(道里), 연혁(沿革), 산계(山溪), 성지(城池), 사실(事實), 관원(官員), 장교(將校), 궁전(宮殿), 사찰(寺刹), 누관(樓觀), 교량(橋梁), 창름(倉廩), 정계(定界), 고적(古蹟) 등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에 저자인 성능의 발문(跋文)을 붙였다. 영조 21년(1745년)에 편찬되었다.

<북한지>에 따르면, 성(城)의 둘레는 8.5km(당시의 환산법에 의한 거리)이고 산성을 드나들 수 있는 성문(城門)은 모두 14개인데 북문 · 대동문 · 대서문 · 대성문 · 중성문 등 5개는 홍예문(虹霓門)으로 만들고 문루(門樓)도 설치하였다. 소동문 · 소남문 등 2개는 문루는 없으나 홍예문으로 만들었고, 서암문 · 백운동암문 · 용암봉암문 · 동암문 · 청수동암문 · 부왕동암문 · 가사당암문 등의 7개는 높낮이가 일치하지 않는 작은 문들이다. 암문(暗門)이란 노출을 꺼리는 문이라서 문루를 세우지 않는데 주로 성안에 필요한 병기 및 식량을 운반하고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극비리에 구원을 요청하고 적을 역습하기도 하는 문이다.

대서문 북서쪽 근처에는 수문(水門)이 있었는데 1915년 8월 집중 폭우로 유실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위의 14개 문 중에서 소동문과 소남문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은데 방위상으로 앞의 4대 성문의 간문(間門)으로 본다면, 소남문은 대남문과 대서문 사이에 소동문은 대동문과 대남문 사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수(將帥)의 지휘소인 장대(將臺)는 봉성암 후봉 즉 시단봉의 동장대, 나한봉 북동쪽의 남장대, 중성문 북서쪽의 북장대의 셋이 있었다. 병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곽의 곳곳에 지은 다락집인 성랑(城廊)은 143개나 되었고 저수지(貯水池)는 26개, 우물은 99개가 있었다.

위급한 난을 피하여 임금이 거주할 행궁(行宮)은 내전(內殿) 28칸, 외전(外殿) 28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행궁을 운영 관리할 부서로서 금위영(禁衛營) · 어영청(御營廳) · 훈련도감(訓練都監) · 승영(僧營) · 관성소(管城所) · 평창(平倉) · 경리청(經理廳) 등의 건물들이 북한산성 안에 지어졌다.

특이한 것은 팔도에서 승려들을 산성 축조에 동원하고 완공 이후에는 산성의 수비를 담당케 했다는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쥐와 나 사이엔 덫이 있다

돌 틈에서 나온 아기 손만한 쥐 한 마리가 개밥 그릇으로 달려가 앞발을 가장자리에 올려놓으며 까치발을 딛고 서서 안을 본다. 돌 틈에서 나오자마자 그릇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니 처음이 아니다. 개밥을 준다는 것이 쥐밥을 주게 되는 것을 안지도 몇 년 되었다. 개밥이 그릇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뚜껑을 덮어놓고는 했으나 이즈음은 보고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졌다.

'에이, 없잖아!'

빈 그릇임을 확인한 쥐는 일으킨 몸을 다시 누이며 오던 길로 지체 없이 되돌아가 나왔던 돌 틈으로 모습을 감춘다.

'그 놈 참 잽싸기도 하다.'

잠깐 동안 시야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쥐의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배가 고팠을까? 쥐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은근히 웃음이 나올까?

내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은 산 중턱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열 집 중 하나다. 마을 사람들 얘기를 모아보면 최소한 5,60년은 넘은 집이다. 100년은 됐을 거라는 사람도 있다. 도끼로 나무를 다듬어 지었다고 해서 '도끼목수가 지은 집'이라 한다. 기초가 흙과 돌로 된 집이어서 쥐가 구멍을 파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다. 동쪽은 숲과 이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쥐들이 먹을 것을 얻기도 좋다. 집안에 양식까지 쌓여 있으니 쥐가 많은 것이 자연스럽다. 주거지가 겹치고 먹을거리가 겹치는, 사람과 쥐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엄지 손가락만한 땃쥐부터 팔뚝만한 집쥐까지, 이 집에서 내 손에 죽어간 쥐들이 몇 마리나 될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 어림잡아도 100마리는 넘을 것 같다. 천장 위가 그들의 놀이터 겸 화장실 겸 짝짓기 터이기도 하여 밤잠을 설치기 예사인 날들이 이어졌었다. 쥐들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언제였더라? 비어있던 집을 방 하나만

쥐도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손을 봐서 들어온 것이 1998년이었으니, 그 해 겨울을 보내면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좀약을 지붕아래 공간에 던져 넣어, 냄새에 예민하다고 하는 쥐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썼다. 그 해는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 해, 다시 천장 위를 오가는 쥐들에겐 통하지 않았다. 끈끈이 덫을 사다가 처마 밑과 마루 밑 곳곳에 놓았다. 가운뎃손가락 크기 정도의 산쥐들은 잘 잡혔지만 집쥐들은 끈끈이가 발라진 종이 자체를 먹어치우고 도망쳤다. 쥐약을 사서 놓았다. 효과는 좋았으나 개가 죽은 쥐를 물고 다니고 구더기가 천장을 뚫고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고부터는 쓰지 않았다.

시장에 가니 덫이 있었다. 바가지 크기의 덫 하나를 사다가 놓으니 잘 잡혔다. 그래 몇 개를 더 사다가 놓을 요량으로 다음 오일장에 가서 덫을 찾으니, 그건 불법이어서 더는 팔 수가 없다했다. 대신 손바닥만한 덫을 세 개 사왔다. 번번이 미끼만 따먹혔다. 철물점에서 상자형태의 덫을 사와 설치했다. 쓸만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부엌으로 들어오는 작디작은 땃쥐를 잡기 위해, 싱크대 밑엔 항상 끈끈이를 펼쳐놓았다. 비로소 쥐의 집에서 사람의 집이 된 듯 했다.

아침부터 흐릿하던 하늘에서 봄을 재촉하는 촉촉한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쥐가 들어간 돌 틈 입구에도 개밥그릇 속에도 그 사이에서 막 빼꼼히 고개를 내민 원추리 싹 위에도 함박눈이 내린다. 땅에 닿자마자 녹으며 땅의 색깔을 진하게 드러내면서 하염없이 내린다.

쥐를 죽이고 싶어 죽이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집만큼은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고 싶다. 쥐를 잡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다. 쥐들 또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어쩌면 이 집이 그들에게는 어느 곳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공간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쥐를 잡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천적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어찌됐든 잡고 잡히는 관계 속에서 나와 쥐들은 살아간다. 연민도 미움도 끼어들 틈은 없다. 돌 틈으로 사라진 쥐가 덫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덫을 놓는 일을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쥐는 잘 피하면서 살아야 하고 나는 잘 잡으면서 살아야 한다.

■ 유승도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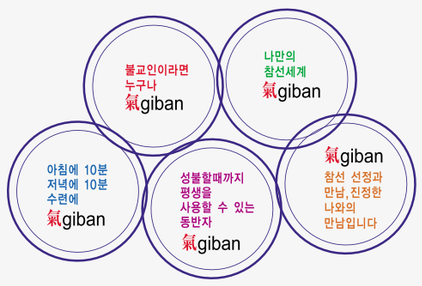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 동영상 교육
기초부터 실무까지 책임지도
개운명리학회 지도교수
(개운정사 남광스님 특강)
1. 인터넷 고화질 동영상 강의
2. 개인지도, DVD 교재 판매
● 다음카페 : 개운명리학당
010-7227-6007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근불교전통의식근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전 통 범 음 범 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범음대학)

염 불 역 학
1달속성완성
● 조용한 신축사찰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 1인1실욕실완비, 숙식제공,
● 경기양평 부근.
● 스님, 예비스님, 법사, 보살, 행자
● 사찰운영자 및 역학관심인
011-716-3811

복두산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하고 조용한 곳, 자연과 더불어 기도성취하며 공부하고 싶은 스님이나 적은 돈으로 토굴하고 싶으신 스님이나, 형제처럼 의지할 인연 찾습니다
관음사
010-9092-9977

기초(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 기초에서 응용까지
- 3개월 완성
- 개인 및 단체강의
-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
011-716-3811

50대 후반 비구승입니다
부전소임이나 작은암자
맡겨 주시면 청정도량
으로 가꾸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처를
기다립니다.
010-5346-6742

기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061)332-7588
011-9604-4730

기도스님이나
부전스님,
공양주 구합니다
010-2296-758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782-3216

공양주
구합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구함
연령 : 60세 미만
반찬,음식 경력있는분.
▷북한산 노적사
02)353-4924
010-9262-5714

기도스님과 평생을
함께 하실 화주시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부여
041)835-3933
010-8353-3337

금년 봄부터 따는
최고 영양좋은 동고버섯
(종균 주입 후 1년 숙성된 것)
표고버섯목 판매합니다
만성스님
010-4773-368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새벽,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50세 이하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근교
010-9308-9919

법당 보살, 종무소
직원(운전가능),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숙식가능
032)522-8131
016-302-7711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여 사무장 구합니다
(PC 가능자)
40-50세,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소재 사찰
011-9087-6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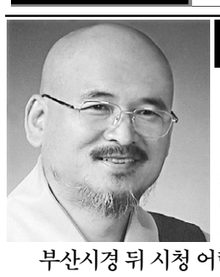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금강송 분양 안내
9년산 금강송 판매
▶ 그루당 4만-6만원 (1.5m ~ 2.5m 크기)
▶ 15그루 이상 주문 접수
▶ 소나무 이동작업 후 인도
016-573-2032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근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갑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10기생 모집을 위한 이름에 관한 모든 것
무료 공개 강의
4월 1일(목)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이광재 교수님이 사주명리 · 관상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0-7701-2248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 육효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① 3. 27(토) 14:00 ② 4.1 (목) 14:00
○ 본 강의 : 개강 4월 2일(금) 14:00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 3개월과정(기초 없으신 분은 보강해 드림)
○ 1월차 : 기초이론, 사주로 찾는법과 활용법
○ 2월차 : 대.세운활용법, 치방법, 실전응용
○ 3월차 : 생년월일로 찾는법, 육효 등으로 찾는법, 실전응용
※ 명리,육효학 기초반 (주 · 야) 모집
백 암 역 리 연 구 원
02) 597-1101. 011-9150-2284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200m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15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 理 作 名 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82쪽, 정가 : 30,000원)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백봉사
- 주 지 : 대봉 (이종수)
  상 좌 : 효성 (김기덕)
  법성 (이종한)
- 주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

위 사찰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31평
- 요사 : 9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 30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 : 3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4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86평
- 2층 : 법당 26평
- 1층: 요사, 방 4칸
- 주차장 40평, 지하철 인접
- 가액 : 3억 7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약 3,000평
- 목조법당 및 건물 6동 (요사채, 산신각, 종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주차장 300평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 교 원 (급) 안 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 3층, 4층, 5층(135평)
- 3층 : 방 4개(처소, 친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 공양실 및 큰방 3개 ●5층 : 대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 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4억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 대지 : 도로 부지 포함해 160평
- 건평: 법당(25평), 요사채(32평) 산신각(방1 별도)
- 가액 : 4억 (가격절충가능)

010-6286-51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태화동
- 실평수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3,300만원 (절충가능)

010-9327-341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중심지
- 건물 70평 (시설완벽)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전세도 가능
- 비구니 스님이 오시면 좋습니다

053)427-5477
010-3131-109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만시장 앞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3층법당, 4층 요사
- 동불 삼불
- 즉시법회 가능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1)638-11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층 건물증 3층
- 평수 45평
- 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1,1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569-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약 50평.삼존불 (동불)
- 가액: 8천만원 중,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6천만원 월 245만원 (부가세 별도)

02)522-4984
010-5851-49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역 앞
- 주차장 완비 ●평수 80평
- 법당, 방3, 스님 별도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병안 문제로 급 양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1-685-67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울주군 청량면 율리 751번지
- 대지 250평, 법당, 45평
- 요사채: 20평 ●2층(산신각)
- 가액: 4억(현 시세 평당 200만원)
- 상담 후 조절 가능
- 전원주택별장으로 사용가능

011-847-1556
052)224-55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비산 4동
- 법당 약 30평
-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40-63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방 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평수 : 280평
- 법당 : 22평 (불사중 90% 완공)
- 요사채 :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화장실
- 5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
- 원하는 금액에 양도 하고자함

010-3877-25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법당 50평,
- 요사채: 5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6천만원 대출 5천만원 가능함

011-540-3313
010-2093-2324

별장토굴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단월
- 대지 : 205평
- 신축건물 57.28평 (황토 목조 기와지붕)
- 1층 34.37평, 2층 22.91평
- 비산계곡, 앞 전망 좋음
- 용문전철 개통
- 가액 : 4억 3천만원

010-6438-3561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역 3분거리
- 도로인접,
- 뒷산 독바위, 정남향
- 전체 : 467평
- 가액: 평당 5만원

010-5048-994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 적합
-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도로변 2층
- 27평, 방1, 부엌, 화장실
- 사무실, 대기실
- 현재운영중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5669-1414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총 8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4
-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 깨끗한 약수가 있는 곳,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 림도(林道)산림욕을 공사하고 있는 곳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280-3번지 3층 건물에 2층
- 평수 60평, 법당 25평
- 종무실 1칸, 방 3개
- 공양간, 주방, 화장실 각 1개
- 보증금 3,000만원 월 55만원
- 시설일체 완비

010-6553-28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강화읍 관청리 마을 뒷산
- 인법당 10평
- (동부처님 삼존불) 산신각, 요사채(방4개)
- 대지 140평
- 보증금 3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5713-5678
032-932-3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밀 IC에서 5분거리
- 대지 400평 ●건평: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 계곡산세수려한기도도량 최고의명당
-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3동 487-3
- 50평, 반지하
- 삼존불, 탱화, 산신님, 덕성님 원만히 다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완벽한 포교원

010-4040-3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천구 신정 4동
-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 대지: 254m²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멘트 2층 사찰
- 1층 98.84m², 2층 86.94m², 지하 23.47m²
- 주차장 완비, 실외화장실 2
- 시가 평당 1700만원
- 가액 : 13억

011-236-6273

사 찰 안 내

- 250년의 도심지 최고의 포교지 고찰
- 위치 : 부산시 중심가
- 평수 : 200평,법당, 목조30평,
- 산신각, 목조 단청 완료
-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방사 7개, 창고 2개
- 250년된 소나무 두주
- 가액 : 답사 후 조절가능

051)291-1162
011-590-28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동명1동
- 건물 : 3층 건물에 2층
- 건평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법당 및 시설 일체 완비

010-6315-115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요사채3, 방 3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소불 1500불, 용왕당, 문수동자200불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주차장 확보 (주인직)
- 가액: 4억(절충가능), 교환도 가능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10분거리(8km)
- 부지 : 총 5200여평(종교1000여평)[전체 관리지역]
- 건물 : 법당 외5포내9포25평,지장전목조17평, 삼성각목조8평, 요사채54평, 45평, 황토목조18평, 5층사리탑, 등
- 주변 : 아름다운조경, 대형주차장, 텃밭천평 (건물가능), 별장터.
- 가액 : 15억 상담후 절충가능

055)356-6083
sambon4@naver.com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 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43)744-295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 재래시장안에 있는 포교당
- 보살, 법사님, 스님에게 적합함
- 법당 45평
- 보증금 4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367-26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시 소주동
- 대지 40평 ●법당1, 요사채1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50만원
- 시설일체 완비

010-3788-45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 4층건물에 3층, 총 40평, 원목불단
- 시설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5만원

- 위치: 경북 상주시, 120평, 건평 25평
- 가액: 4500만원(조절가능)

010-8676-2406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⓫ 척추 전만증

6개월의 치료기간이 길다고요?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밀려나온 증상을 '척추 전만증(이하 전만증)'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뒤로 젖혀지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허리 앞쪽이 휘어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필자는 이러한 자세를 ET자세라고 말합니다. ET자세를 장시간 취하게 되면 자연히 배불뚝이처럼 아랫배가 툭 튀어나오고, 목이 거북이 목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면 몸이 구부정하게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두개의 'S' 자를 겹쳐놓은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경추)은 오목하고, 등(흉추)은 볼록하며, 허리(요추)는 오목하고, 골반과 꼬리뼈(천추와 미추)는 다시 볼록한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알맞은 양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의 커브가 너무 많거나 작으면,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통증을 참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게 되면 서로 맞닿아 있는 관절들에 염증이 생기고 퇴행되기 쉽습니다. 이는 척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전만증의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천적 요인은 추골(척추를 형성하는 뼈)·천골(골반을 구성하는 뼈)에 이상이 오는 것과 또 하나 후천적 요인은 척추가 변형되는 경우입니다.

전만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쁜 자세 습관입니다.

전만증은 임산부에게 많이 발병되는데, 임신기간 중 요추(腰椎, 허리등뼈) 부위의 하중이 앞쪽에 쏠리게 되면서, 요추가 앞으로 휘어지게 되고, 연결된 골반의 후만(뒤로 튀어나오는 증상)상태를 유발시켜, 전신 자세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전만증은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킵니다.

배불뚝이처럼 휘어진 요추(허리뼈)는 디스크를 압박하고, 결국 디스크의 팽윤(膨潤 : 물질이 용매를 흡수해 부피가 늘어남) 증상을 유발시키면서 주변 신경을 눌러 척추 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임산부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고생하는 것은 대부분 전만증 때문입니다.

전만증이 있으면 허리 통증뿐 아니라 흉추의 불균형 증상으로 인해 가슴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만증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앞으로 나온 요추(허리뼈)를 바로 잡아주는 전신의 체형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튀어나온 요추로 인해 약화된 복근을 강하고 탄력있게 해야 합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로 손상된 등 근육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전만증이 생긴 경우에는 허리가 뒤로 휘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자의 체형교정 클리닉에 출산 후 2개월 만에 찾아오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임신기간 동안, 심각한 전만증으로 인하여 출산 후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환자의 요추(허리)는 밀려나와 있어 자연스럽게 복근과 등 근육을 심하게 손상시켰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었습니다.

전만증의 핵심적인 치료법은 무엇보다도 골반과 요추(허리등뼈)를 반듯하게 펴주는 교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요추와 후만된 골반을 반듯하게 펴주면, 전만증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이 분은 6개월 간 저희 교정클리닉에서 치료를 하였고, 90%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보셨습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길다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비틀어져 있던 체형을 6개월 만에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만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편평한 바닥에 하늘을 보고 누운 후 두 무릎은 구부려서 세웁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렸는데도 허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허리와 바닥의 공간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남는다거나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면 전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정상적인 척주(왼쪽)와 과다하게 휘어져 전만 된 척추(오른쪽).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⓫

무술에 환상을 가져다준 방송매체

'과연 어떤 무술이 강할까'라는 질문은 무술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무술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자신이 하고 있는 무술이 제일 훌륭하다'며 남의 무술을 격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래되어 편을 갈라 무술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란 장기간에 걸친 연구 성과가 축적돼 만들어지므로 개인이 일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술을 창시한 사람들은 이전에 익힌 무술을 발전시키거나 독창적으로 개발한 권법을 섞어 자신의 문파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창설합니다.

새로 창설된 무술은 분명 기존 것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데 역사로 보더라도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어느 문파의 전수자라면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명분이 있으므로 새로 무술을 창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문파에서 비결을 전수받지 못한 이들이 우두머리를 꿈꾸며 만든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무술을 섭렵한 상태에서 정통 문파무술을 배운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하급무술과 상급무술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급무술을 익혔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급무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이죠? 꾸준한 노력과 정진이 필수입니다.



영화 '의천도룡기' 중 한 장면.

이렇게 무술은 이해관계에 의해 여러 부분이 변합니다.

불교는 도교에서 새로운 계율과 무술을 받아들였으며, 유교에서는 각종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교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와 너무나도 다른 형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문파무술(중국무술)이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과 환상을 가져다 준 데에는 방송 매체의 역할이 큽니다. 각각의 문파무술과 소림무술까지 중국 내의 모든 무술을 등장시킨 '의천도룡기'라는 드라마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의천도룡기는 드라마로만 세 번 만들어졌으며 영화, 책, 오락으로 만들어졌고, 현재도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의천도룡기는 잘 제작됐지만, 작가가 무술의 고수가 아니기에 그의 상상력에 의한 픽션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길이 없기에 보는대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진실로 굳어져갑니다.

의천도룡기에서 무당권이 발전한 것이 태극권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오답입니다. 무당산의 최대 문파는 태극무영문파로 무기 권법만 80가지입니다. 이름에 태극자가 붙어서 그러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당권(武當拳)은 일반적으로 내가권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당권은 수많은 도교사원으로 유명한 무당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중국무술을 설명하기 위해 소림의 외파(外把)와 대립되는 무당의 내파란 말을 사용했을 정도로 소림무술과 쌍벽을 이루는 무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당권(武當拳)은 수(水), 토(土), 화(火), 목(木), 금(金)의 도교 우주론의 5원소와 같은 역경(易經)의 음양(陰陽)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을 응용한 권법은 그들의 수행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런 동작은 공격과 방어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 힘인 내경(內勁: Neijin)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공(內功: Neigong) 호흡법을 결합하고 조화시켜 훈련한 것입니다.

그럼 요즘은 왜 무당권이라는 무술이 없을까요? 무당권이란 이 무당산에서 발생한 무술의 통체적인 명칭이지 어느 한 무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파(門派)'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당산 下 태극무영문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⓫ 여드름

피부미인 · 미남이 되는 방법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 청소년의 얼굴, 가슴 등에 도도록하게 나는 피부 종기로 털 피지선(털과 지방분비선)의 가장 흔한 염증성 질환이다.

여드름은 면포(comed: 여드름 집), 구진(papule: 피부에 돋아나는 발진)농포(pustule: 고름물집), 염증성 결절(hillock : 피부 밑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겨서 강낭콩 또는 그보다 크게 겉으로 솟아난 것)이 특징이다.

여드름이 심한 경우 피부 깊숙이 형성되는 화농성(종기가 곪아서 고름이 생길 성질) 주머니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호르몬과 피지 · 세균의 종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병의 정도가 결정된다. 여드름이 사춘기 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안드로겐(androgen : 남성호르몬의 총칭, 여성에게서도 분비되는 남성성질의 호르몬)의 증가로 털 피지선의 크기가 커지고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여드름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특정 음식물, 약물,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호르몬, 세균 등의 영향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괄사법.

여드름 치료는 전신 괄사와 부분 괄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 괄사와 여드름 난 부위를 보법(補法 : 음과 양의 조화가 맞게 함) · 튕기기 괄사를 꾸준히 해주면 2~4주 후에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주 2회 90~120분
<부분 괄사>
매일 30~40분
1. 등판전체부위 – 척추를 직선으로 미골(꼬리뼈)까지 실시
2. 팔꿈치 바깥 전체를 긁고 튕긴다.
3. 엄지와 검지(둘째손가락)사이 오목한 부위 긁고 튕기기
4. 무릎앞(족삼리혈위)부위 긁고 튕기기
5. 복사뼈, 삼음교(발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위로 세 치 올라간 곳)주위 긁고 튕기기
6. 머리전체와 얼굴전체10분 정도 괄사 하기 (피부에 맞는 로션이나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괄사한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달오름 3. 미모사 4. 보라매소 5. 보라매 특대
⑶유의사항
1.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 탄산음료 · 커피는 되도록 삼가한다.
3. 상온의 맹물을 마신다. ⑴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불자정보 776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
053)522-6487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시설 최상급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 안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30평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교원 안내
●위치 : 안성시 보개면 구봉산자락의 명당터
●대웅전 및 요사채 포함
●건물 5동, ●용궁 수질 1급수
●연못에는 비단잉어 약 1천마리
●100m전방에 골프장
●대지 1100평, 용도는 근린시설
●가액: 16억, 물물교환도 가능
011-249-6755

포교원(급)안내
●위치 : 장호원 버스 정류장앞
●법당과 방 2개
●삼존불, 산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약사여래불 108불
●가액: 3500만원(시설비포함)
031)642-8345
010-7711-7926

포교원 안내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서문로터리 영봉여고 통로
●현재 법회 기도중
●4층 건물 중 2층, 실평수 40평
●시설: 삼불상, 후불탱화, 양쪽인등, 주방집기일절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약간 조절가능)
031)258-7584/019-371-0470
010-9862-9786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원주 세밀 IC에서 5분거리
●대지 : 400평 ●건평 : 90평 (대웅전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55평)
●계곡산세수려한기도도량, 최고의명당
●가액: 3억 5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교원 안내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빌라 주택 밀집 지역,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법당 약 20평
●방 2개 주방겸 거실
●남 여 화장실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사찰터 및 공장안내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공장 1동, 시설완벽함
●가액: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 팔공산 5000평부지 (2000,3000평 분할가능)
●사찰부지 허가 필
●전기, 지하수 개발 완료
●팔공산 불사 인연 희망자께 파격가로 양도
●주인직통
010-4512-0813

사 찰 안 내
●위치 : 청주시 풍동 종교시설
●사찰 및 기도터 최적지임
●대지 480평, 건평 50평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200만원 포함
010-3472-5654

포교원 안내
●최고의 명당사찰 터
●경북 청송 주왕산 사계절이 펼쳐지는 곳
●총 대지 : 5,000평
●대웅전 30평, 관음전, 지장전, 삼성각 단청완료
●석등 大 4개, 中 4개, 석탑 3개
●요사채 : 공양간, 방사 4개, 창고, 목욕탕
●일급수 약수물 자연식수, 도로 사정 아주 좋음
●종단 본산 수련장, 교육도량으로 적합
●복지시설, 약초재배도 가능
051)291-1162
011-590-287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의령,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법당 29평, 원불 300불 모셔져있음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법당 시설 완벽, 대형버스 주차가능
●가액: 1억 3천 7백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 가능) 전세도 가능합니다
010-4193-3366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위치: 충북 보은군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가액: 평당 18,000원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랍
010-9967-9832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온천동
●평수 70평, 2층, 큰방3, 작은방3
●공양간, 세면실 별도
●현재 법회중, ●주차시설 양호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43)222-9686
010-9199-7897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면적: 2층 30평(별도 출입문)
●법당 25평 (탱화 10점)
●소불 100분, 인등 270등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법요 및 집기 비품 일체 포함)
010-2446-2626

사 찰 안 내
●위치 : 고흥근 도화면
●법당 35평, 요사채 2동
●산신각 1동, 종각
●평수 1,000평
●가액: 1억 5천만원
061)832-3136

사 찰 안 내
●위치: 경북 봉화군 시내에서 5분거리
●법당 약 20평 법당 내 (삼존, 신중, 칠성, 산신)
●주지실 1동, ●요사: 약 30평 내 주방, 욕실 (심야전기보일러, 난방용태양열설치)
●주차장 : 103평
●가액: 5,800(오천팔백만원), 가격절충가
●스님 노환으로 급 양도합니다
011-481-0966 지홍
017-801-8633



나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 모든 걸 놔버리세요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문) 저는 남편이랑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모든 게 내 탓인 양 내게 욕설을 퍼부어 대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만 화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음공부를 만났고 지금은 차츰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따귀를 맞는다 해도 그것도 주인공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맞은 거지, 눈에 안 보이면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느냐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 그 맞은 것도 자기 탓이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맞은 거니까요. 지난 날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맞는 겁니다. 꼭 때려야만 맞는 게 아니라 불손한 일을 했으면 불손하게 들어올 거고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발견을 해야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 나의 병도, 나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가난하게 끌고 가는 것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연구하고 또한 지혜를 기르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의 마음이 편안하고 한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밥을 굶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요. 나로 인해서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에다 놓고 가면 거기까지 밝게 불이 들어와서 우는 것을 뚝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번연히 알면서도 못 믿는 사람, 그건 배냇병신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시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 보세요. 가게를 하는데 영 되는 노릇도 없고 또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언제나 그렇게 생활을 해 보세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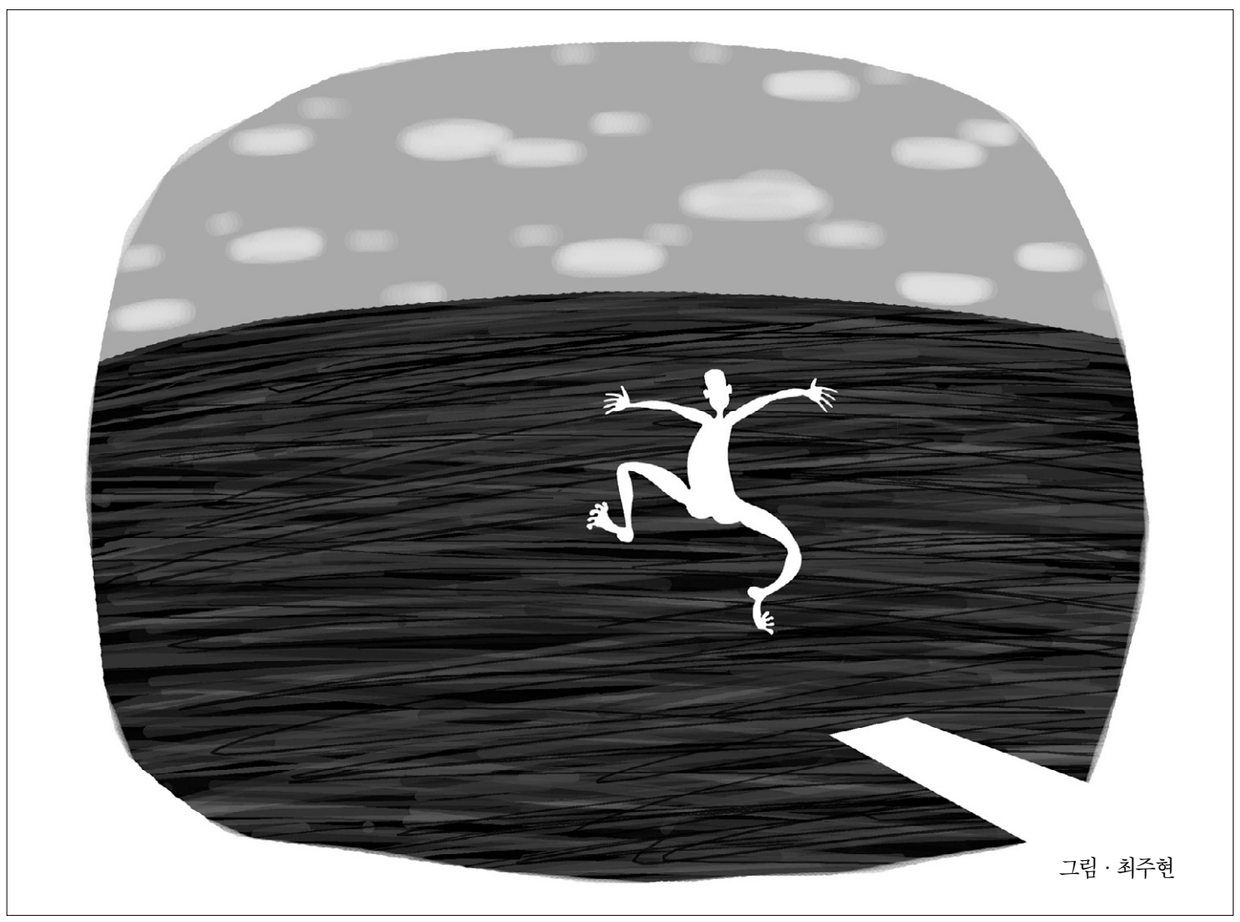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 안되는 것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갑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데 '고정됨이 없다' '공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잡숫는 것도 고정되게 김치만 잡숫는 분도 없고 빵만 잡숫는 분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 먹다가 어떤 땐 저것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고정되게 한 가지만 잡수십니까?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게 다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 생활이며 고정된 게 없으니까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병이 생겨도 내가 먹는 음식이나 그런 게 모두가 약입니다. 밥도 약인 걸요. 빵도 약이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거 전부 약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너밖에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믿어 준다면, 아마 사람한테 그렇게 믿어 준다 해도 생명을 걸고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모든 일체 생명이 다 같이 호응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을 이끌어 가는 내 속의 오장 육부의 모든 세포에 들어 있는, 전자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과로 인해서 업식이 뭉쳐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하게 하든 선하게 하든 바로 내 몸을 이끌어 가는 친구입니다. 한마음의 친구요.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게 움쭉거려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이 지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다, 누구다, 내 거다 이런 생각도 마세요. 내 몸도 내 게 아니니까요, 각자.

그러니 내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도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 놓는다면 악업이나 선업이 다 자동적으로 녹아버리고 바로 그 생명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의 털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간다 이겁니다, 오히려 나쁘게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아하! 이렇게 신성하고 맛좋은 것은 난 처음 봤어. 처음 먹어 봤어. 처음 느껴 봤어.' 이러고 알게 되는 거지 남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스스로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정말 이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안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살면 죽은 뒤 어떻게 될는지요

문)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데 저를 돌아보니 바로 지옥행이지 싶습니다. 제가 좀 망나니처럼 살았거든요. 부인이 절에 가 보자 그래도 다음에 간다고 그러면서 늘 미뤘었는데 이젠 저의 의지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저같이 살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일러 주시어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답)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 둬야 할 거는 이 인연에 따라서 뭉친 것이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그게 분산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대가 흩어져서 없어지면 그 의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대로 그 의식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수많은, 즉 말하자면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이 사생의 어떤 것이 될지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산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화해 가지고 그냥 수많은 것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수만 개의 생명이 우르르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떤 것은 지네가 되고 어떤 거는 지렁이가 되고 어떤 거는 독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갑니다.

사생이 사는 게 다 우리 인간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아프지 않습니까? 벌레라고 밟으면 안 아픕니까? 또 우리 인간은 밟히면 안 아픕니까? 모두가 아프고 고통이고 고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지원에 갔다가 허리를 조금 아파 봤는데 내 그렇게 허리 아픈 거 처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야! 참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허!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러고서는 껄껄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난 더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내가 갔더라면 큰일 날 뻔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법당 앰프 / PWA-110 320×230×270mm...8.5kg / PWA-730 430×275×275mm...4kg /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buddhanews.com

이 세상 사는 게 다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25면에서 계속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참자기는 참 일등이로구나.' 그럭하고 나니까 허리가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몸속에도 16억이라는 숫자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6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식 속에서 막 그냥 괘씸한, 남을 탓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생기고 속상하는 생각도 생기고 뭐, 강도질할 생각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죠. 남을 약을 먹여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 나는데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려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죽어서 사대가 흩어지면 수많은 구더기가 헤아릴 수 없이 생기듯이, 그냥 거기서 지네도 되고 독사도 되고 별거 다 됩니다. 그게 흩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고 자기의 마음의 차원대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오간지옥이라는 게 뭐냐? 벌레로 나서 이 흙속에서 다시 탄생 못하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 뭐냐? 독사가 돼 가지고 다시는 다른 모습으로다가 화하질 못하는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우리가 딴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천당도 있고, 이 자리에서 승천도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지옥도 있고, 바로 독사지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독사지옥이 돼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독사가 되면 독사가 되는 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습이 있어서. 그런데 다가 독사 엄마, 아빠가 새끼들을 오물오물하게 낳아 놓으면 그 엄마 아빠를 산 채로 뜯어 먹고 이 새끼는 삽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독사지옥이라 그럽니다. 아니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죽어서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 쓴 대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본 자리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이 카세트에다가 다른 노래를 또 넣으면 그 앞서의 노래가 없어지죠. 그와 같이 내 전자의 과거의 업이 있어도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앞서의 게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전부 선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자기를 돌보는 보현신이 됩니다,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보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부지간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저 속 안 썩이려고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낼까 봐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프면, 뭐 몸이 아파서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쓰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 믿는 것을 하나라도,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을 믿어야 그래도 거기다 의지를 하고 살지요. 네? 내가 죽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나 자체입니다.

그와 같이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고, 대신 똥 눠 주는 것도 없고 바로 자 주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그 길이 바로 무상한 길이죠. 무상한 길이라고 해서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허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이 둥근 이 진리 속에서 그대로 흘러 도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고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렇게 앨 쓰고 살아야만 됩니까? 이 고를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해 놓고, 늙고 젊고를 막론해 놓고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늙었다고 공부 안 하고 젊었다고 안 하고 학교 다닌다고 안 하고 장사 다닌다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이구, 바빠서 죽을 날도 없겠네요.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쓰러질 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라고 내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의 견해에서 말을 해서 틀릴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걸, 처음부터 모든 걸 놔버리는 데에만 목적을 뒀습니다. 나 주인공 하나를 세워 놓고선 모든 걸 일임시키고 놔 버리는 데에 목적이 돼 있었어요. 다 놔 버리고 이 몸까지도 다 그냥 놔 버리니까 그때서야 홀연히 그 완벽하게 나라는 게 서더라고요. 선 뒤엔 모든 게 이렇게 부딪치는 대로 의정이 그때에 나는 거죠. 이거는 모으지 않고는, 한데 모아서 내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그래, 그 과정부터 해야 돼요. 그걸 전부를 놓지 못하는 한은 주인공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주인공에다 놓는 자는 누군가.' 그러면 둘이 돼 버린다고요. 그렇게 사량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헛갈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기는 것마다 그냥, 나까지도 그냥 몰락 놔 버렸을 때에 나라는 게 삐죽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진짜 안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의정이 거기에서 붙죠. 인제 그때 가선 내가 정말 그렇게 의정이 나도 헛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헛갈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생각지도 말라 이겁니다. 몰락 그냥 놔 버리는 데만 치중하라 이거죠. 매사 게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들어갔을 때 다 놔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놔 버렸을 때에 '나'가 폴락 나오고 '나'가 나왔을 때 의정이 나는 거지, 사량으로 의정을 내서는 천날 백날 해야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 정말이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참된 의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문) 공부를 하다 보니 주인공에게 일임한다 하면서도 또 일임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의정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헛갈립니다. 참된 의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답)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놔 버려라 하느냐 하면, '주인공에다 일임해라' 하는 건 그거는 내가 의정 나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매사 거를 이렇게 다 주인공에다 놔 버려야 그때 가서 하나가 완벽하게 설 때 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과목이라니까요. 첫째 내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로 그냥 뭉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의정이, 대의정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 시키는데…

문) 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 보라고 시키는데 엉뚱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어요. 난 이날까지 노예 생활을 했노라고요. 그래서 그 소릴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공부할 때 그때에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타의의 신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자신이 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인이 "저기 나가서 너 춤춰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서 내가 춤을 췄다고 생각하면 춘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죽으로다가 이 몸뚱이를 춤을 추게 해 가지고 어떡하나 볼 양으로, 빠져나가나 못 빠져나가나 그거 보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춤추는 것도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춤을 춰도 될 거를 구태여 이 몸뚱이가 나가서 추는 거는 사량 아니에요, 이게? 남 보기에 볼상만 사납지. 그러니깐 그것도 수치가 되니깐 이 몸뚱이를 그렇게, 즉 말하자면 인형 놀리듯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벌써 그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걸 커버해서 넘어가야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들어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미신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본다면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합시다. 이거 먹지 말란다고 먹지 않습니까, 배는 고픈데? 그러면 이 먹지 말라는 것도 너고 먹어야 한다는 것도 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 이겁니다. 이게 커버하는 겁니다. 절대 둘로 보면 안 되죠. 먹지 말라는 놈하고 먹는다는 놈하고 둘로 보면 안 돼요. 먹는다는 놈도 너고 먹지 말라는 놈도 너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어.' 하고 먹는 거죠. 또 내가 속에서, 저기 나가서 따따부따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런다고 나가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하죠. 그것이 커버하는 겁니다.

또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아, 나는 공부해야겠어.' 하고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과 공부하지 마라 하는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인제 그때는 이 시키던 놈이 다 자기로 그냥 포함이 돼서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건 자기 마음대로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시킨다 할지라도 이게 나쁘게, 즉 말하자면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면 이거를 커버해서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가는 것도 바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얘가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치 커버할 수 있나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건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커버시키기 위해서 우정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둘로 둬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게 따로 있고 내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이게 지금 시키는 게 따로 있고 이게 내가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둘로 두면 이게 잘못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

문) 제가 선원에 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턴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법회때 삼귀의나 청법가, 산회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저만 그렇게 흐느끼고 울 수도 없어서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지,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 네. 전자에 이런 공부를 좀 하신 거죠. 누구나가 다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전자에, 댁의 몸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거를 정신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당신 자체는 몰라도 자기 주인공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겹고 흐느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댁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죽으면 우리가 뭐 아나?' 이러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차원에 따라서 사람을 모두 다스리고 부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해서 나오는 대통령도 있지만, 부모들이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정성으로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모든 것을 좀 돌아다볼 줄 알아야만이 또 뒤가 길죠. 그렇지 못하면 뒤가 없어요, 뒤가 짧아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도리를 알아서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놔야죠.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듯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 마음, 그 뿌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 데다가 도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개무량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그저 울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세요. 우는 건 댁에서 우는 게 아니라 눈만 빌려 주고 마음만 빌려 줬을 뿐이에요.

제25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정진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최근 수년간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왔으며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자.

나. 실천분야
불교인 혹은 불교단체로서 신행과 포교에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

시상규모 각 분야별 1명 2,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본회 소정양식)
나. 이력서 (사진 첨부)
다. 업적을 증명하는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라. 추천서 (대학총장, 대학원장, 기타 불교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역대 불이상 수상자)

접수방법 e-mail 서류접수
(단, 이메일 전송이 불가한 대표 업적물만 우편접수)

접수마감 2010년 4월 20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 및 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불이상 담당자 ☎ 02)2014-6616
이메일 jjlee3614@gmail.com

不 二 會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중도 지혜의 활로는 없는가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100년이 되었다. 남한북한이 분단된 지 62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국망과 분단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병증은 현재 편찬중인 <친일인명사전>과 <친북인명사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 편찬위는 모두들 '꺾어서 꿇리는 절복' [折伏]만을 강조할 뿐 '껴안아 들이는 섭수' [攝受]가 보이지 않는다.

병자호란 이후 우리에게는 명나라와의 의리에 집중한 친명파와 청나라와의 실리에 치중한 친청파가 있었다. 지난 세기 초반에 나라가 망하자 실리에 몰입한 친일파가 생겨났다. 중반에 분단이 되자 명분에 치중한 친북파가 생겨났다. 친일파 일부는 민족의 자존보다 개인의 영달을 우선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변호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일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독립을 준비한 사람도 있다. 해서 친일과 부일 및 항일과 극일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해방 이후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민족의 뿌리인 만주 지역을 잃어버렸다. 동간도와 북간도와 서간도는 살아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무대였다. 하지만 좌우의 이념 과잉은 급기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우리는 일제 청산과 친북 청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세기 이상을 갈등해 왔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북조선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와 만주대륙에서 펼쳐내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릴 것인가.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와 대발해의 강역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제외시킬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고려 건국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의 물리적 이념적 배경이 되었던 만주 지역 동북 삼성의 독립운동 무대를 지워버릴 것인가.

2005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맞서 2010년 3월 국가정상화추진위에서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명단을 발표했다. 편찬위는 "친북 · 반국가 행위 대상자 5천명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를 대상으로 1차 수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며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선군노선',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 · 선전한 행위(친북행위)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경우(반국가행위)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고 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는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전'이란 "단어를 모아서 그 형태, 발음, 기능, 어원, 구조 및 관용어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벌여놓고 뜻을 풀어 새긴 책"이다. 그렇다면 '인명사전'은 "인명을 모아서 그 생몰년대, 출신성분, 활동이력, 이념성향, 정치행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벌여놓고 뜻을 풀어 새긴 책"이 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그 인명들의 친일 활동 이력을 주로 기술할 것이며, <친북인명사전>은 그 인명들의 친북 활동 이력을 주로 서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전'이라는 '권위' 혹은 '지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재정열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자신의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전은 초중고학생들의 '이념교과서'가 될 것이 분명해진다.

나아가 우리 민족은 또다시 이념과잉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교는 꺾어서 꿇리는 '절복'과 껴안아 들이는 '섭수'를 치우침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새가 두 날개로 날고, 수레가 두 바퀴로 가는 것처럼 '친일'과 '친북'을 뛰어넘어 그 모두 살리는 '중도 지혜의 활로'는 없는 것일까.

그 활로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을 버리고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역할모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닐까.

사 설

기도 세레머니 자제돼야 한다

종교(宗敎)를 으뜸의 가르침, 진리, 즉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평화, 정의 등의 가치를 포함하며, 이 가치들은 현실에서 자비, 배려, 사랑 등의 행위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때론 안타깝게도 종교는 혐오하고 배타하는 기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신교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세레머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3월초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 신분으로 다양한 계층과 종교를 무시하는 특정종교의 치우친 언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도 세레머니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교회언론회가 "개인의 신앙과 표현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남의 일인 양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공공성(公共性)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국사회에서 개신교는 자기우월성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종교표현의 신중함을 요청하는 것은 종교로 인한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 하는 타당한 행위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공공성 여부를 따져보자.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한다. 국가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공공적이며, 선수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어느 사회이던지 종교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종교는 그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신념화해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종교는 대체로 자기우월성을 강하게 지닌다. 이것이 종종 자기 종교 밖의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종교인의 배타성은 신념화된 것이기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를 배반할 정도의 격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종교 분쟁은 반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십자군전쟁을 비롯해 오늘도 벌어지는 극한 종교 분쟁을 살펴보면, 유일신 교끼리의 분쟁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기독교가 우상숭배를 금지한 것은 기원전 700년경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등 강대국의 간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종교적 · 정치적 저항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다. 주변 국가들의 간섭을 물리치고, 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우상숭배 금지는 확고해졌다. 한 세기 전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피식민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개신교만은 천년 이전에 유용했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받들고 있다. 그 이유는 위기의식에 있다. 우상숭배 금지는 문패일 뿐 사실은 물리적 확장이 멈춘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며, 위기의식은 일부 개신교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기 밖의 존재에 대한 배려 없는 종교는 다문화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종교평화위원회의 촉구를 개인의 종교행위에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는 공인이다. 공인에 걸맞는 행동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축구협회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칼럼

박소이
전 과거사진상규명위 연구원

첫사랑 선생님의 선물 '무소유'

3월 11일 그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메일 확인을 위해 들어간 포털사이트에서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기사를 접했다.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스님의 입적소식에 마음 한 켠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생전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법정 스님은 내게 매우 특별한 분이다. 법정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다. 학교에 국어선생님이 새로 전근을 오셨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시던 순수한 총각선생님이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그리 멋진 외모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수업에는 항상 열정적이셨다. 특히 학생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사랑으로 챙겨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소위 요즘말로 '훈남' 선생님이셨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 중간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선생님을 남몰래 짝사랑해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국어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때 선생님이 수고했다며 주셨던 선물이 바로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였다.

'소이에게. 늘 조용하게 웃는 웃음이 좋더니만 좋은 성적을 냈더구나.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소이의 아름다움을 내세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1996. 10. 29 小曲'

선생님이 주신 <무소유> '영혼의 母音-어린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편에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린왕자>를 아마 서른 권도 넘게 사주었을 것이다. 너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내 신뢰감과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설사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벗이 될 수 있어"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받아 선물을 하게 됐다"고 선생님의 친필이 적혀있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무소유'를 읽고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천천히 한 장씩 읽어내려 가면서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나는 그해 아버지 생신에 <무소유>를 사서 선물로 드렸다. 그 때부터 나도 지인들의 책을 선물할 때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선택했다.

성인이 돼 다시 펼쳐든 무소유에서는 법정스님의 말씀이 더 깊고 풍요롭게 다가왔다. 어린시절 어렴풋이 이해했던 스님의 말씀이 성인이 되자 가슴으로 이해가 됐다. 스님께서 쓰신 다수의 책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있는 나 또한 많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옷 · 가방 · 자동차 등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지구의 공기,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스님은 <무소유>에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각박해지고 지칠 때 면 나는 스님의 책을 펼쳐든다. 그곳에서 생전 만나 뵙지도 못한 법정 스님에게 위로를 얻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첫사랑의 기억은 희미하게 잊혀져간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中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모범 불자기업’ 이 우리에겐 초일류



좌절과 시름의 늪에서 건져준 불교에 보답

전선 과열로 사찰 화재… 연등용 안전전선 개발

불제대원기업을 가다

불제대원기업의 주력 상품은 자체 개발한 법당 안팎 연등용 전선과 전구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슬기와 용기를 얻어 불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 불자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늘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작업에 임한다.

불제대원기업의 모토는 ‘모범 불자기업’이다. 또 자부심이며 늘 기도하며 발원하는 사업체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불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님의 제자(佛弟子)라는 의미와 함께 재앙을 물리친다(?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찰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을 하는 기업이다. 불제대원기업의 시작이 사찰에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 어린 시절 김포 금정사를 놀이터로 생각할 만큼 자주 갔다. 갈 때마다 법당의 부처님께 넙죽 절을 했었다. 삼성, LG 등에 안정장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오 대표는 1987년 평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체를 접었다.

분노를 삭이기 위해 산을 자주 찾았다. 이 산 저 산 오를 때마다 절에 들르게 됐다. 절에서 스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법당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는 때도 많았다. 그렇게 산을 다니면서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어느 날, 어김없이 법당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고요한 기운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다. 그때 오 대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선’이었다.

길게 늘어진 전선에 전구가 수십 개 연결돼 있었는데 전선이 너무 얇았다. 전선과 전구의 전압도 맞지 않았다. 손으로 전선을 만져보니 곧 탈 것처럼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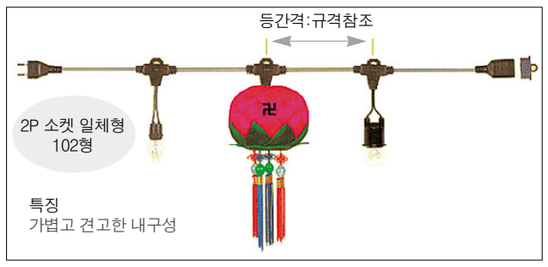
오 대표는 그 절의 스님에게 달려가 “스님, 전선이 너무 얇아서 이대로 있다간 탈 수도 있겠네요. 전선을 새 것으로 갈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소리냐. 이 전선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전선을 팔려면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면서 타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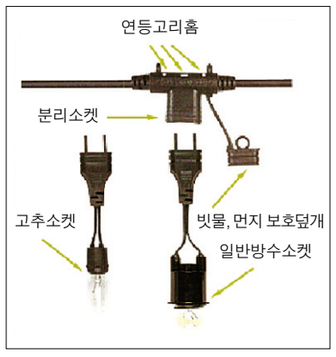
그 일이 있고 1주일 뒤 그 사찰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TV뉴스로 보았다. 오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사찰 관련 안전장구를 개발하자고 마음먹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준 불교에 도움을 주자고 다짐했다. 이런 연유로 1989년 10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불제대원기업이 탄생했고, 주력 상품으로 연등용 안전전선을 개발했다. (032-986-0277)

그 사찰 뿐 아니라 많은 사찰이 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찰 건축물은 목조이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로 타 버리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모양은 그대로 본 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역사 · 문화 · 가치는 재현할 수 없다. 사찰이 전기 안전에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 대표는 “값싼 외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어느 제품을 쓰던지 사찰에 쓰는 전기 · 안전 장구는 인증된 것, 반드시 KS마크가 있는 것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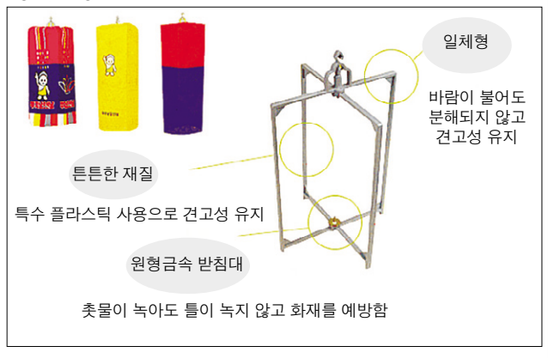
대원의 연등용 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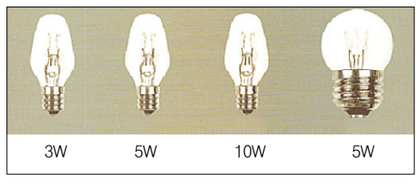
많은 연등에 은은하게 불을 밝히면서도 감전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연등용 전선이다. 인입선에 소켓을 다는 것이었다.

전선의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완전에 가깝게 줄였다. 설치, 수거 시 배선은 그대로 두고 소켓만 분리하면 되므로 작업이 아주 수월하다.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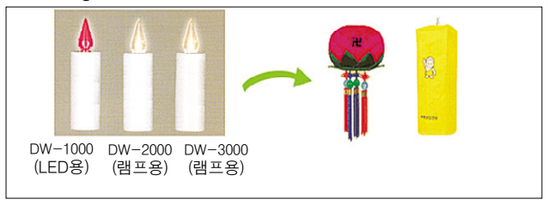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



건전지용 초



“초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제대원기업 오대권 대표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 불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 사찰 주지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불제 대원기업은 1989년 신심 있는 불자들로 구성되어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여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 제품으로 오늘까지 꾸준히 제품 개발과 최고의 품질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자기업체입니다.

전국 사찰주지 큰스님들의 도움으로 사월 초파일 행사를 비롯한 교계의 각종 행사에 저희 불제대원기업이 불사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불제대원이 생산하는 제품을 한번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화재예방 안전과 견고한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받은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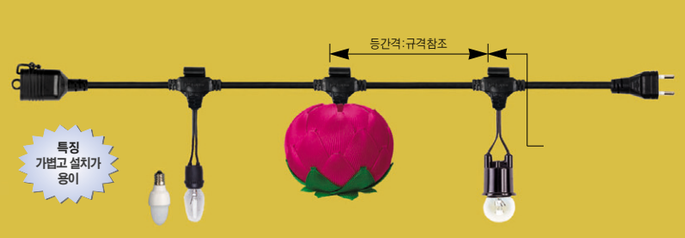
외국 및 타사 어느 제품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도 월등히 우수하고 뛰어나므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서도 대단히 만족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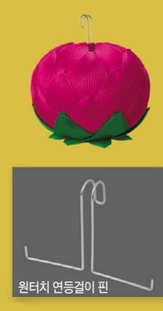
저희 불제대원기업 전 임직원들은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슬기와 용기를 얻어 불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범 불자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늘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부처님 전에 다짐합니다. 귀 사찰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 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